

2014년 WEA 총회개최 성공기원을 다짐

조용기 목사 참석 격려사 전해

2014년 세계복음연맹(WEA) 총회 준비차 한국을 방문한 WEA 대표단을 위한 환영 만찬이 15일(목) 저녁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WEA 한국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자연 목사)가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제프 터니클리프 대표를 비롯한 WEA 대표단과 조용기 목사, 이만신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WEA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자연 목사, 김영우 목사(총신대 재단이사장, WEA 준비위 사무총장), 엄신형 목사, 정인도 목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환영사를 전한 대표회장 홍재철牧사는 "WEA 대표단과 함께 지난 이틀 간 류우의 통일부 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며 "2014년 WEA 총회는 물론, 내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하와이 한인기독교 이민 110주년 기념 대회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홍재철牧사는 "WEA 총회는 전 세계 약 2백개 국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그야말로 영적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정부 측 인사들도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등 WEA 총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환영 및 격려사를 전한 조용기牧사는 "한

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흥을 경험했다"며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세속화와 물질주의로 위기에 처해 있다. 2014년 WEA 총회가 한국교회를 정화시키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기牧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과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성경에는 능력이 있다"며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잃은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牧사는 "(WEA 한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인) 김자연牧사는 보수적牧사로 우리들을 잘 인도하실 것"이라며 "WEA도 도와달라. 한국교회가 WEA의 일원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번 총회를 통해 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제프 터니클리프 WEA 대표의는 "WEA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 하나는 한기총과 같은 기독교 연합기관이며 또 하나는 한국교회의 도움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기도가 그것"이라며 "특히 기도가 중요하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한들 기도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총회를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이어 터니클리프 대표의는 "2014년 한국에서 열릴 WEA 총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또 그 자리는 전 세계에서 참석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도 격려가 될 것이다. 우리는 WEA 총회를 통해 세계 복음주의의 모습을 알리고 싶다"고 역설했다.

그는 WEA 총회의 비전에 대해 "각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것이며, 그들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허브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또한 다원주의와 세속주의, 종교적 폭력들에 대해 WEA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터니클리프 대표의는 "20대 때부터 북한을 위해 기도해 왔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모일 것이며, 우리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전한 김자연牧사는 "한 사람의 힘보다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합쳐

지길 원한다"며 "2014년 WEA 총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오전 WEA 대표단은 2014년 총회 개최 장소인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를 방문했으며, 오후에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예방해 면담을 가졌다.

한편 WEA 의장 일행은 18일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경서교회(당회장 홍재철 목사) 추수감사예배에 참석해 WEA 의장 제프 터니클리프牧사가 설교하고, 홍성의 담임목사가 통역을 맡아 은혜를 끼쳤다. 또한 한기총 대표회장이며 경서교회 당회장인 홍재철牧사는 WEA 의장과 일행을 환영하고, 성찬식을 집례한 후 축도로 마쳤다.

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온 교회가 화합과 통합의 구심점이 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동아줄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킨 것도 교회의 힘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상생의 정치, 폭력 있는 정치로 바꾸어나가도록 힘쓰겠으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도 기독교와 한국 교회가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종교계와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대북 민간 교류협력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예배를 총괄준비한 장현일 장로(분회 사무총장)는 한국교계 처음으로 개최한 2012대선위한 국가조찬기도회 헌신예배를 통해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께 위탁

을 위해, 감경철 장로(분회 부회장)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이광자 권사는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연합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에 이어 이만신 목사(분회 교문)의 축도가 있었다.

노승숙 장로(국가조찬기도회 회장)는 2012년 제18대 대선을 위해 기도하며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께 위탁하여 훌륭한 대통령 선출을 위해 기도하자고 요청 했다.

이날 박근혜 후보는 축사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위기에 서 구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



하고자 대선후보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등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신뢰와 화합정치를 요청하고 1천만 성도들은 대선을 위해 기도하며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투표참여를 다짐하는 기도회가 되도록 준

비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는 각 언론과 방송을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생방송중계 되어 해외동포 성도들도 함께 대선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다.

제18대 대통령후보 초청 국가조찬기도회 열어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가조찬기도회(회장 노승숙) 헌신예배가 지난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주최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롯 1만5천명의 교계 및 국가지도자와 성도들이 모여 조찬예배 들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는 이배웅 집사(국가조찬기도회 이사)가 봉독한 이사야 6장 8절 말씀으로 "조국은 부른다"라는 설교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번 대선에서 무엇보다 국민화합과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국가발전을 위해 상생하며 회생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교회와 성도는 이번 대선을 기도하고 반드시 투표하자고 강조했다.

김명규 장로(분회 부회장)의 사회로 채익승 장로(분회 부회장)의 대표기도, 베데스다성가대의 특별찬양에 이어 두상달 장로(분회 이사)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발전



예복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와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지저스타임즈 및
- JTNTV방송 사장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예배 시간표

■ 주일낮예배 주일오전 11:00 유·초등부 : 주일오전 9:00 중·고등부 : 주일오후 3:30 청년대학부 : 주일오후 2:00	■ 주일저녁예배 주일오후 7:00 ■ 수요일밤예배 수요일오후 8:00 ■ 금요일기도 금요일오후 10:00	■ 구역장교육 수요일오후 9:00 ■ 심야기도회 매일오후 10:00
--	---	--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수락리버시티 2단지
☎교회 : 02)3391-9676(대) 02)934-1232

세주부협, 제5대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 취임식 열어

“야전군인과 같이 값지게 쓰임받는 단체 만들 터”

세계주영 광부흥사협의회의(이하, 세주부협)는 지난 10일(토) 오전 11시에 인천 남구 송의동 소재 '송의가든'에서 제5대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등불교회, 예수능력치유센터)의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취임식은 세주부협 회원들과 원근 각지에서 찾아온 축하객들로 축하장은 시종 은혜롭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취임식을 잘 마쳤다.

이날 사무총장 데이비드김 목사(생명샘교회)의 진행으로 부총재 이재원 목사(부활교회)가 대표기도를, 복음성가 가수 세라임 부부가 특송을, 총재 이재갑 목사(빛과소금교회)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세주부협이 7년간 성장해오고 전국에 많은 회원들이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세계를 다니며 복음전하여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며, 회복시키는 부흥사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 단체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것은 대표회장이 사무총장 시절 열심히 성실하게 한 결과”라고 치하했다.



또한 “대표회장이라는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대표회장이 임기 중에 큰일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당당하고 강한 능력 있는 단체요, 소문난 좋은 단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총재 이재갑 목사로부터 제5대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가 취임 패를 수여받고,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가 고문 이철호 목사, 강문종 목사(광명광산교회), 자문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 박길영 목사(담서제일교회), 연수원장 정기환 목사, 부총재 이재원 목사, 정기남 목사, 성창경 목사(예성교회), 하중우 목사(마라톤교회) 등에게 추대패를 전달했다. 또한 임원인 사무총장 데이비드김 목사와 감사단장 박수영 목사(행복샘교회)에게 임직패를 수여했다.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국교회와 기도를 살려보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땀 흘린 세주부협 식구들에게 감사드리며, 직급이 명예가 아닌 섬기기 위한 자리이며, 말만이 아닌 행함으로 성실히 모임과 성회에 임할 것이며, 한국교회를 살리는 부흥사, 인격적인 부흥사가 되어 있으나마나한 부흥사가 아닌, 명함에 쓸 하나 더 올리기 위한 직함만 가지고 있는 유명무실한 부흥사가 아닌 부흥사다운 부흥사가 되어, 무명하지만 귀하게 쓰임 받고, 가려서 다니는 부흥사가 아닌 철저한 야전 군인과 같은 부흥사가 되어서 값지게 쓰임 받는 부흥사와 단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자문이자 연수원장인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는 축사에서 “젊은 대표회장으로서 젊은 날에 대표회장이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됨을 축하하며, 젊기 때문에

더 역동적인 사역을 하리라 확신 한다”고 하였으며, “젊다는 것은 그 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므로 지경이 넓어지는 부흥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부총재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는 격려사에서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며, 지저스타임즈 사무국장과 인천 지사장을 맡고 있기에 더욱 한국교회에 귀히 쓰임 받는 부흥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격려해주었다.

이어 축가는 강신숙 목사(정중환 목사(기독연예인부흥사선교회), 박예스터 목사(세계비전능력교회), 오선연 찬양 선교사의 색소폰 연주와 부총재 하중우 목사의 축도로 취임식을 마쳤다.

이번 세주부협 제5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광영민 목사는 여러 부흥사단체를 직접 조직하는 일에 관여하였으며, 행정과 실무에 능하고, 부흥사 단체의 중요 요직을 거쳐 대표회장이 되었다. 광영민 목사는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회와 기도를 이끄는 곳이면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문 부흥사로서 ‘야전 군인식 부흥사’를 지향하며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는 인천 송의동에 무일푼으로 등불교회를 개척한지 꼭 10주년이 되는 해여서 배가되는 큰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세주부협의 근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것과 대협집회를 계획 중에 있다.

한편 철저한 부흥사로 동역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는 사무총장 데이비드 김 목사에게 (010-4099-0691) 문의하면 된다.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정위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교정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교정위원 전문화 기본교육 과정”을 서울구치소에 개설하여 교정위원 45명이 현재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과장인 신용해씨는 수용자들이 사회에 시선에서 자유함을 얻어 재범을 하지 않고 잘 적응하도록 교정위원 중에 종교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고, 교정기관에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히브리서 13장 보면 “너희도 함께 감히 것 같이 감히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는 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란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은 교도소 사역에 관심을 더 가져 이들이 교도소에서 변화되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같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본다.

포항지사장 이기학 기자

합동 비대위, 주여 우리총회를 살리소서!

전국 목사, 장로는 비상기도회를 갖고 ‘항규철 총무 자진사퇴하라 촉구’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의 정상화를 위한 전국 목사, 장로 비상기도회가 15일 오후 1시 30분 새로 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위원장 서창수 목사)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는 2500여명의 총대 및 전국의 목사와 장로를 비롯해 총신대 신학대학원생 20여명이 모여 ‘주여! 우리 총회를 살리소서! 새롭게 하소서!’라며 통곡하며 총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이번 모임의 첫 기도 순서를 맡은 남승찬 장로(전국장로회회장)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용역을 의지했으며 물욕에 어두워 믿음의 양심을 제비뽑기에 맡겼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용서 해달라”라며 총회의 수습을 위한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총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발표됐다. 결의문에서는 “총회장은 불법파회 선언을 한 총회를 즉각 소집하고, 만약 속회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신임권을 가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한 “성총회의 품격과 도덕성을 땅에 짓밟히게 한 총무의 자진 사퇴와 불응 시 총회를 소집해 해임할 것”을 결의했다.

그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총회와 목사, 장로들,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분열을 주면서도 책임 질 사람이 없다”며 “자체적으로 정화되고 하나 되지 못하면 더 큰 아픔을 당하고 언젠가 회복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의 기도인도로 김영옥 목사(목포제일노회장)가 ‘남북 화해와 통일, 계층 간 화합의 비전’, 정희웅 장로가 ‘한국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주제로 각각 기도한 후 김경원 목사(서현교회)축도로 마쳤다.

이날 비대위는 1,2,3부로 나누어 설교와 비상기도회를 갖고 “총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회장과 총무를 총회 산하 각 교회 당단에 세우지 않고 노회 방문을 허락하지 않을 것과 내년 봄 노회 이후에도 현 비대위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총회 정상화 시 비대위는 즉각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도회는 총신대 신대원 중 한 명은 “이번 파회 사태에 대해 목회자가 될 사람으로서 한국교회뿐 아니라 일반 세상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안타깝고 슬프다”며 “교단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돼서 부끄럽지 않는 교회의 지도자들로 서기 바란다”면서 왜 우리 선배들이 이것밖에 하지 못하나 하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수 성명에 이어 원우회도 조속한 시일에 총회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려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빠른 시일 내 총회가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장기환목사 사장: 소조우목사 발행인: 장기남목사

- 전국 21개 지사 / 해외 25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차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성폭력사범 교육 및 심리치료강화 대책마련

「교정위원 전문화 기본교육 과정」서울구치소에 개설, 교정위원 45명이 활동 중, 2013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에 성폭력사범 교육 및 심리치료 강화 방안에 대해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 주내용은 교정기관에 수용중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육·심리치료를 강화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 및 사회 안전 확보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일반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기본교회 이수 시간을 4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며 재범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성폭력 자들에 한해서는 6개월에 300시간의 집중 심리 치료교육을 할 예정이기도하다.

현재 서울교정청산하에 있는 남부교도소에서는 성폭력전문교정공무25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25명씩 4회에 100명을 선정 교육하며 고위험군 성



폭력사범 교육·심리치료를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서울지방교정청 1개 기관 외에 지방청별로 3개를 증설하여 심리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법무부 김태훈 교정본부장은 “앞으

로도 교정위원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봉사활동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수행자를 위한 다양한 교정정책 및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재범

꿈(Dream)

사랑(Love)

행복(Happy)이 넘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전원중앙교회는
† 여러분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 행복한 사랑이 피어나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전원중앙교회의 미래 1. 성장하는 교회 2. 건강한 교회 3. 아름다운 교회



담임목사 정기환(D.Ed., Th.D.)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정같은교회 ↔ 교회같은교회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정기환(D.Ed., Th.D.)

▷SBS방송설교인내: 라디오 5분 메시지, AM837, FM98.1 매주(목) 저녁8:55분

▷cbs 인터넷방송 WWW.CBS.CO.KR 24시간 청취가능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신문방송 이사장(www.jtntv.kr www.cpj.kr)

주 소 : 420-86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79-5(전원마을)

사무실 : 032) 321-9101, 9102, 9109 전화철교 152-3927

홈페이지 : www.gardenchurch.org

교회동산 : 강원도 양주군 동면 원당리 산43-4번지

추수감사



† 파송선교사 : Johnny, Peligm(멜리만), 정구현(키르키즈탄), 박해영(일본), 윤장택(호주), 안성희(태국), 방영순(대만), 이원철(캄보디아), C(Thomas 김)
† 협력선교사 : Nengzakhai(인도 Manipur) 외 12개국 24명 † 강도사 : 최병철 † 전도사 : 이희순, 김강성, 박경진, 윤신여
† 정로 : 묘사중, 임철수, 김대중, 박준민, † 전도인 : 서승희 † 성가대지휘: 손영자집사, 피아노: 조은지, 키보드: 서승화(전도인)

☐ 배설상서대막 : 매주 토요일 오후 8:30~9:30

매주 시간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일자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토요일은 정례회, 필요하면 제외)	
공요기회	밤 10:00
유치부(주일)	오후 1:00
초등부(주일)	오전 9:30
청년(주일)	오후 4:00
학년(주일)	오후 1:30



(사)한개협, 간담회- ‘보조금 지원요청 건의’

1. 지원요청 배경
정부가 요양시설의 시설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나, '구법' 시설을 신법시설로 전환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따르는데 현재 구법시설 중 개인운영시설(조건부 시설)은 로또 복급으로 지원받은 건물인 관계로 시군구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있다'



조한수 목사
(한개협 대표위원장)

정적 시설운영을 위해 유예기간 도래 이전에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의 탄력적 운용방안 등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국고지원을 건의한다.
특히 2010. 4. 23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개선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상반기에 제도개선방안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중 부칙 제 3조를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다.
더욱이 부처 간에 합의가 되어 확정된 제도개선방안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근시안적인 시설기준의 졸속 설계 등에 따른 잦은 제도변경으로 구법시설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입법 추진상황조차 간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도개선방안을 무시하면서 정부가 구법시설, 개인운영시설(조건부 시설) 등에게 강화된 시설기준을 5년의 유예기간 내에 무조건 갖추도록 압박하는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2. 건의사항

구법시설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요

정부의 잦은 제도변경으로 구법시설의 존폐 기로에 서



제18대 대통령후보 초청 간담회 열려

구사항

①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인시설과 개인운영 시설이 동일한 장기요양수가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시설에만 기능보강비를 지원한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

긋나고, 더욱이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개인시설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함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구법 개인운영시설(조건부 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

원을 강력히 요청한다.

② 소요예산 판단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구법시설 개인운영시설(조건부 시설)이 374개 시설(정원 11,112명)로서 이들이 영리로 시작된 곳이 아니었으며 비영리로 운영되

고 있는 시설에서 신법규정에 적합한시설로 개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리모델링비, 스프링클러 설치비, 내진설계에 따른 시설개수비와 증축비등 제반 비용이 총 1,550억 원이다.

이렇게 신법으로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종사자가 현재 3,231명에서 1,987명이 증가하여 5,218명이 종사하게 되어 현재 우리사회의 최대 이슈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③ 개인시설의 경우에도 규모는 작지만 법인보다 많은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농어촌 노인들에 대한 케어서비스를 담당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종사자들을 충원할 수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2002년도 개인운영시설(조건부 신고시설)로 출발하여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였던 노인복지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왔던 바, 동 시설 등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정대성 목사, 추수감사 및 임직예배 드려

강남북원교회, 개척 8개월 만에 성도들 180명이 예배드려



예장(합동) 강남북원교회(정대성 목사)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본당에서 11월 11일 오전 11시 낮예배를 통해 추수감사절 예배 및 장로, 집사 임직예배를 드렸

다.

임찬미 목사(광주 온누리찬양교회)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김진영 안수집사가 기도를, 이상철 교육목사가 성경 시

편 116:12~14절을 봉독하고 유영주(한려오페라단), 김영상(목원대학교수), 박함, 김은자 집사(본 교회), 이요한(테너가수) 등이 특별 찬양을 드렸다.

이어 담임 정대성牧사는“감사생활을 하자”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 후 봉헌한 손길들을 위하여 축복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에서 임찬미 목사(온누리찬양교회)사회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임직식이 거행되어 임찬미 목사의 성경 딛후 2:20~21절을 봉독한 후 담임 정대성 목사는“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 임찬미 목사는 임직자들을 호명하고 손을 들어 서약을 하고 공포했다. 이어 담임 정대성 목사는 임직자들에게 임명장과 패를 수여했다.

이어 최원영 장로(온누리찬양교회)가 축사를, 임연섭 장로(강남북원교회)의 담사가 있는 후 온누리찬양교회 성도들의 축가가 있었다. 또한 가족 및 친지들의 꽃다발 증정과, 광고가 있는 후 3부 정대성 목사의 오찬기도로 축하만찬으로 화기에 애한 자리가 되었다.

이날 정대성 목사는 감사절에 대한 설교에서“감사절에 대한 유례와 의미를 설명하고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기원했다. 그

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병을 고치는 육신의 병원이기도 하지만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인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며,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했다. 또한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되 말씀 안에 쫓아서 은혜 속에서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기원했다.

그러면서 감사생활은 어떤 역경이 와도 성도는 감사하는 자로 살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생활이 닥친다 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의 성도라고 말씀을 전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그 길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정 목사는 2부 임직식에서“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하나님의 교회의 직원으로서 이 그릇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각인시키며 모두가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고 했다. 또한 정대성 목사는 첫째는 깨끗한 그릇이 귀한 것이요, 두 번째는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며, 세 번째는 쓰기에 편리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그릇이라도 사용하는데 불편하면 의미가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순종과 복종으로 귀히 쓰임 받는 직분자들,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날 강남북원교회는 음악목사로 김광한 목사를 임명하고, 임연섭, 장덕남 집사가 장로로, 진대박은 안수집사로, 김현애 권사, 정순례 명예권사, 강축복(민정), 김광희, 김둘레, 김은자, 김현숙, 문광석, 박함(선호), 송정희, 윤정옥, 이은희, 이주석, 이춘구, 정숙현(예진), 유영주 등이 서리집사가 된 것을 임명하고 선포했다.

정대성 목사는 이날 예배를 마친 후 강남북원교회를 시작한지 8개월 만에 성도가 180명이 되었다며 이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축복이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렸다. 또한 정 목사는 간암과 폐암 등 사형선고를 받고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환자들을 위해 특별집회를 갖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음을 입고 깨끗하게 치유한 받은 성도들이 이날 간증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겠다며, 직분을 받았다.

이날 장로로 임직 받은 임 모 장로는 판, 검사로 법조계에서 35년간을 제직하다가 암병으로 불과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은 가운데 강남북원교회를 소문을 듣고 찾아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며 안수를 받고 치료함을 받아 장로로 임직을 받았다.

강남북원교회는 개척 8개월 만에 양재동에 대지면적 1,494㎡(452평), 건물면적 404.07㎡ (122평),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로 강남북원교회가 2개월 내로 이전할 예정이다.

설립4주년 및 추수감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담임 임찬미 목사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 임찬미 목사
장 로 : 최원영
전 도 사 : 이부자 전은혜 정희선
선 교 사 : 함다니엘 황예진 조에스터
반 주 자 : 박시은 박시내 정은주

예 · 배 · 시 · 간
주일낮 예배 :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9:00
주일저녁집회 : 주일 오후 7:30
청년부 예배 : 주일 오후 2:00
심야기도회 : 매일 오후 9:00
학생부 예배 : 주일 오전 9:00
축복성회 : 매주 금.토 저녁 9:00~
주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매주 주일 저녁 7:30~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추수감사절을 축하합니다.



담임 정대성 목사

개척 8개월
180여명 성도

임직자 명단
(11월 11일 주일예배)

음악목사 김광한 목사
장 로 임연섭, 장덕남
안수집사 진대박
권 사 김현애
명예권사 정순례
집 사 강축복(민정), 김광희,
김둘레, 김은자, 김현숙,
문광석, 박함(선호),
송정희, 윤정옥, 이은희,
이주석, 이춘구, 정숙현
(예진), 유영주

대한예수교
장 로 회

강남북원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05-18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 《불교인 전도 특별성회》(2)

신용주 목사
(한밀교회 담임)



오늘 주제가 불교인을 전도 하기 위한 특별 대성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교인을 전도하다가 불교인들에게 전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교인 100명 중에서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오는 사람들은 9명인데,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로 넘어간 사람은 13명입니다. 카톨릭을 믿다가 불교로 빠진 사람은 2명밖에 안됩니다.

왜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빠지는가?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탄생을 믿고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저 복이나 받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둘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 예수를 믿어 봐도 별거 없더라, 좋은 거 없더라...

두 번째 이유는 불교는 석가라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애 꼭 맞아요,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사람이 도를 닦아야 부처가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부처가 됩니다. 이것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맞아요, 좋은 일 많이 해야지고, 도를 열심히 닦아야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래야 부처가 되는 것라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니까? 무슨 죄를 지었던 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불교의 교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에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불교인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굳건하게 썬야 되고, 반면에 불교의 교리도 알아야 됩니다. 옛날의 불자들은 1년에 한번 4월 초파일날 절에 가도 불자로 여겼습니다. 절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그저 복달라고 절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교인은 다릅니다. 현재 불교인들은 불교의 교리를 심취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대화도 안 할려고 하지요. 병원에 전도하러갔다가 불교인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찮게 보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 이 모든 것을 상의 세계라 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비상, 비비상, 상도 아니고 상 아닌 것도 아닌 그러한 세계를 추구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 하려고 하면 콧방귀를 뀌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그들의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그들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모르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열 받는 겁니다. 마음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를 창시한 사람은? 석가모니입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의 뜻은? 석가란 석가의 족속, 부족이름, 석가 족에서 태

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서문으로 가니 장례식이 있습니다. 늙으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문으로 들어가니 한 승려가 도를 닦고 있었습니 다.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석가모니가 29세 때에 도를 닦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연구한 것이 당시에 인도에 유명한 종교가 브라만인데, 브라만에서 신들을 왜 이렇게 많이 섬기는가? 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결과 인도에는 민족이 두 민족인데 원주민족이 드라비다족이고, 그 후 BC 15세기에 유럽으로부터 이주되어온 아리안족이 있는데 이 아리안족이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인도의 주축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리안족이 영구적으로 원주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카스트 족이다. 그들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등 네 가지 계급을 만들어서 한번 브라만으로 태어나면 평생 호의호식하고, 한번 수드라로 태어나면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평생 노예계급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안 족은 브라만, 승려계급으로 평생 살고, 원주민들은 바이사, 평민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이사, 수드라, 평민이나 노예계급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수드라로 살아야 내세에 바이사가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 다.

그리고 바이사로 태어나서 착하게 살아야 크샤트리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크샤트리아는 관료, 군인, 정치인으로 사는 계층인데, 그러니까 아리안 족은 승려계급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이 왜 그리 많은가를 알아보니 브라만에서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는 제사가 많아야 사람들이 제물을 많이 바치고, 제물을 많이 바쳐야 승려계급들이 먹는 것이 많아지니까 신들을 많이 만든 것을 알았습니다. 브라만에서 신이 많은 것은 브라만 계급들이 치부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신이구나 이것을 석가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처음 발표한 것이 신이란 없다. 모든 게 자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입니다. 천사의 존재를 몰랐던 겁니다. 천사도, 영도, 귀신도, 하나님도 계시는데 그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불교는 철저하게 무신론, 근본적인 교리는 신은 없다.

영혼도 없다. 귀신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석가의 가르침이다.

어났습니다. 모니? 선생, 성인, 그래서 석가모니는 석가 족에서 태어난 훌륭한 스승, 성인을 가리킵니다. 석가의 본명은 고타마(성) 싯타르타(이름)입니다. 그리고 불타(佛陀)란 인도 고어 산스크리트어인데 붓다(Budda)란 말은 깨달은 자, 이것을 한자로 佛陀인데, 이는 한글로 부처입니다. 부처란 깨달은 자입니다. 신이 아닌 석가모니 불은 석가족 출신의 성인으로 부처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석가의 출생은 오늘날의 네팔과 인도의 국경부근인 히말라야산(山) 기슭의 카필라성의 성주 정반왕과 마야 부인사이에서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석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인생이 무엇인가? 왜 태어나서 죽는가? 이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너무나 우울증도 심했습니다. 세상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석가를 기쁘게 해 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도 심했습니다.

2) 석가가 집을 나갔습니다. 사문유관 동서남북 문을 다니면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동문을 가보니 늙은이가 있습니다. 왜 늙은이가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노인은 누구나 다 늙는다고 하자, 깨달은 것은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문으로 가니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병

칼럼 **퓨리탄 장로교회 목사 서 영웅(JTN방송 상임이사)**



생명은 존재 속에서 감각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에게 오감의 감각을 주셨다.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은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각들이다. 이러한 여러 감각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그 불편함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촉감이 없다면 바늘로 찌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그 동안 많은 이단 세력으로부터 시달려왔으며, 앞으로도 그 유혹들은 계속될 것이다. 생명은 비, 바람, 눈, 서리에 견디기 어렵지만 또한 그로 인해 성장을 촉진 시켜 주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2. 9. 26) 전면 광고를 접하면서 때 아닌 물결을 만난 심정이였다. 광고를 낸 사람은 어느 기성 교단의 목사로 자신의 인물 사진까지 첨부하여 "성경에 근거 없는 주일 예배 언제까지?"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냈다. 광고 하단에는 몇몇 교회 목사가들이 "안식일 회복 운동을 지지한다"는 부설 광고를 했으며, 주요내용은 주일 성수는 성경에 근거 없는 것이므로 불법이며 범죄라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구약과 신약으로 분리 기록되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를 기록했으며, 메시아의 출생을 말씀 했으며, 그

말씀은 이루어져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 승천의 역사를 기록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재림과 심판으로 모든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마무리 되는 것이다.

예수님 생명의 부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 그 자체이다. 제자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의 상황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넘치는 기쁨뿐이었다. 「(요한 20:1)안식 후 첫 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마태 28:1)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마가 16:2)

환희의 첫 날 새벽

안식 후 첫 날 매우 일찍이(누가 24:1) 안식 후 첫 날 새벽에」주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 날 새벽인 것으로 성경은 기록 하고 있다.

(누가 23:44~45) 때가 제 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삼일 동안 무덤에 장사된 바 있다가, 안식 후 첫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구약 창조의 역사를 마무리 하신 것이다. 또한 높고 넓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 하는 것으로 구약의 제사직을 비롯한 토요 안식을 마무리 하신 것이다.

안식 후 첫 날 새벽은 생명의 기쁨과 환희에 찬, 주의 날이다. 주의 날에

예배드리 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금도 안식일을 고집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들은 마땅히 안식 제도의 본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화복제를 매우 토요 안식일에 드려야 할 것이다. 또한 레위기 에 기록한 대로 먹는 것 입는 것 등 모든 지켜야 할 내용들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토요 안식일 이었다면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주님의 부활을 안식 후 첫 날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신 것이다.

(말라기 3:9)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안식 후 첫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로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다.

주일 예배는 불법이며 죄라고 정의 한 것은 광고를 낸 목사 본인이 책임져야할 내용이다. "토요 안식일 예배를 과감히 시행하여 제사제명 회복운동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내용의 광고문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할 것이다.

토요 안식일 예배라는 용어는 성경에 근거 없는 내용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불신하는 것이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역사이다. 십자가의 부활은 안식 후 첫 날로 믿는 자에게 생명과 기쁨으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다.

개척교회설립 창립10주년, 임원취임예배



창립10주년기념 개척교회설립 임원취임 감사예배 및 구국특별기도회가 지난 달 29일(월) 오후 2시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잃은양찾기운동본부 주최로 진행되었다.

정일랑 목사(인천 항기로문교회)의 진행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회계 윤선을 장로(예장합동총회)가 기도를, 총재 전

석도 목사(잃은양찾기운동본부)는 인사를 통해 "잃은 양들을 다시 찾아 그들을 구원시키고 회장과 소망을 주는 일을 위해 시작된 잃은양찾기운동본부가 2012년 10월 10주년이 되었다면서 전국에서 뜻을 같이하여 자리를 같이한 많은 목회자, 장로들을 환영하고 감사 를 전했다. 아울러 각자 돌아가면 주변

에 잃은 양이 없는지, 그들을 찾아가 소망을 주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하고, 동 단체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잃은양찾기운동본부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날 예배위원은 한영희 장로, 허경화 목사,총재 전석도 목사, 회계 안정숙 목사, 2부는 강창원 장로의 사회로 김보라, 박병호 목사가 축가를, 황규철 목사(예장합동 총무), 인지상 목사(바울신학 연구위원장)가 축사를, 남상훈 장로(예장합동총회 부총회장), 김훈중 목사(새시대새사람연합 대표), 김만규 목사(기독신보사 이사장), 김기택 장로(국제사 랑재단 상임이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함심기도로 정창진 장로, 이성모 목사, 양은준 목사, 박정희 장로, 임화영 목사 등이 기도했다. 이어 임순자 이사장은 취임하는 운영이사 이성모 목사, 임화영 목사 등에게 축하패를 증정하고, 운영이사 이성모 목사의 취임사에 이어 총재 전석도 목사 축도로 마쳤다.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연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 일	보혜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초방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중등부	오전 8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 일	영어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책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 예 배 안 내 >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요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살전 3:8)**



담임 유영섭 목사

안천의 3대 비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변화된 세상

◆ 예배와 교육안내 ◆

예배	주일 낮 예배: 1부/오전9시 2부/오전11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주일학교	주일전날예배: 오후 2시50분
	구국예배: 각구역별로
영양교육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수요기도회: 오후 9시
영양교육	유치부: 유치부실(지상)1층/오전11시
	청소년부: 청소년부(지하2층)오전9시
영양교육	아동부: 아동부실(지하)1층/오전9시
	영아부: 오전 10시30분(1층 영아부실)
영양교육	새가족: 주일 오전10시20분
	성경연구: 화요일 오후8시
영양교육	성경일과: 아동부실 주일 오후 1시
	베델성경: 목요일 오전10시/오후8시

(445-380) 경기도 화성시 안성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개인운영신고시설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제18대 대통령 후보초청 간담회

사단법인 한국개인운영신고시설협회(이하=한개협)주최로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지하1층 대강당(다이하로드실)에서 제18대 대통령 후보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인이사장 정재은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제18대 대통령 후보 초청 간담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던 약속은 갑작스러운 후보들의 일정변경으로 결국 이렇게 되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상경한 시설장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각 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후보들을 대신해 참석하는 것으로 간담회는 사무총장 광동훈 목사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새누리당 김선동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후보 인사말 대독에서“간담회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쟁거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박근혜 후보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늘 다루어진 현안들을 보고하고, 협력하겠다며 약속”했다.

사실 개인운영시설들이 전국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 있다. 이들은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로는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를 하지 않아 종사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직원을 구하는 일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날 밀양에서 온 최 모 여인은“공단이나 시청 관계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금만 늦게 받아도 호통을 치는데,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약자들을 향해 호통을 쳐도 되는 건지 공직자의 횡포는 심하다며 그동안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큼 시설운영에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고 콩을 경작해서 된장과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아 노인복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직장이 없는 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밭에 나가 일을 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공단이나 시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죽기 살기로 뛰어서 전화를 받으면서 자신은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요 하는 목소리가 떨리며 눈시울을 적신다.

그는 또 사망하나로 12년 전에 이 사역을 했고, 공 한조각도 나누어 먹는 심정으로 오순도순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여든들을 모셨는데, 이제는 공직자들의 세계가 무섭고 상막하다고 말한다.

또한 모 관계자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공단에 들어가면 시설장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취급을 안한다는 것이다. 복지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는 거만하고 오만분신하며 그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설장은 좀 더 낫은 시설, 노인들을 평안하게 모실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증축비용을 저리로 빌려주든지, 아니면 평수를 조절해 달라고 호소한다. 그러면서 병원은 190평에 55병을 수용할 수 있지만, 개인복지시설은 27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분명 이는 잘못

된 법이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어느 개인시설운영자는 지난 10년 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복지시설운영에 혼신을 다해 일을 해 왔고, 현재 복지시설 증축공사를 하던 중 어려움이 많아 중단됐다면서는 눈시울을 적신다. 증축공사비가 부족해서 시설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구청직원은 자료제출 못할 경우 폐침퇴에 걸린다고 협박을 하는데,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소름이 끼쳐진다고 했다.

시설운영에 몸 바쳐 희생생사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왜 이런 횡포를 부려야 하는가? 공무원들에게 호소하기를 다음에 공사를 하면 안 되는가 지금 전화도 전기도 끊어져서 사무실 문을 열 수가 없고, 컴퓨터도 안 되는데, 어데서 서류를 만들라는 것인가? 구청직원은 그대로 해야 한다 자료제출 안하면 폐침퇴에 걸린다고 협박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모 시설장 관계자에 의하면 복지담당 공무원의 권한횡포가 너무 강해서 오전에 팩스하나 보내놓고 오후 1시까지 서류 만들어 오라는 명령

주당 강기정 의원, 희망한국포럼 신재은 총재, 정책전략연구 최영찬 실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시설장들은 각 당 대통령후보에게 아홉 가지의 조정방안 및 지원요청서를 전달하며 협조를 부탁하자, 의원들은 시설장들이 제시한 내용을 대통령후보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I. 개인운영시설(시설, 재가, 장애, 아동 등) 개선방안 요청의견

시설의 문제

1.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당권 설정 해지 및 증·개축 지원 요청 건

1)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건물의 신축 및 증, 개축(환경개선 설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로또기금)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10년간의 근거당권 설정’이 되었으나 복권기금 자체가 당시 순수 지원금으로 사회복지시설

3) 장애인 시설의 경우 2005년도 이후 신고시설로 등록되어 더 이상의 시설 증가는 없으며 정부 지원이 가능하나 개인시설 이라는 이유와 2008년도 요양제도에에서도 시설수가 적다는 연유로 제외 되어있어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종사자 1인 지원을 요청 합니다.

3. 요양보호사 인원 조정의 건

요양사 인원에 구법은 대상자 7인당 1인이며, 신법(전문시설)은 2.5인당 1인으로 규정 되어 있으나 현재의 수가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요양사의 급여 및 4대 보험과 퇴직금, 배상보험 등을 지급하면 어르신들에게는 서비스가 불가 하므로 4인당 1인으로 요양사 인원 조정을 요청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는 수가는 탁상행정으로 현실과는 차이가 있어 수가의 조정 또한 요청합니다.

II. 시설 및 재가의 공통사항 요청의 건

1. 장기요양기관 가감산 및 과태로, 정지, 폐쇄 조정의 건

1) 현 시설에 종사자의 기존 등이 충족 이상이면 가산금을 5%이상 주면서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약30%를 감산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감산 및 과태료의 기준이 현행 병원의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조정을 요청합니다.

2) 현행 가산금을 받은 시설대상으로 현지조사 안내(현지조사구제 제도안내)라는 명목으로 공단에서 시, 군, 구와 더불어 조사위원을 구성하여 종사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는데 옛 일본 독재 방식으로 마치 죄인을 다루는 듯하고, 수사권을 가진 것처럼 취조하는 방식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은 수시로 시설 및 센터를 감시의 대상으로 삼아 전화가 통화 중이거나 연락이 늦게 되면 비인격적인 대우를 일삼으며, 서류 요청 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오전에 알려주고 오후에 제출이 늦어질 경우 폐침퇴로 여겨 차후 시설 현지조사라는 명목으로 괴롭히는 것을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시설 및 재가 평가기준 조정의 건

1) 격년 시설 및 재가 평가 기준에서 시설평가 항목은 98개, 재가는 60개로 되어 있다 보니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어르신 케어가 소홀하게 되며, 평가항목자체에 중복된 부분들이 많으며 실제로 시설 평가 시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10점 만점에서 9점을 주어야함에도 0점 처리하는 미시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 기준을 전면 수정 보완하여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2) 현행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평가/ 시설평가

/ 급여 관리에 대한 세 가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등급평가는 의사와 전문사회복지사가 해야 하고, 시설평가는 지자체가 하여야하며, 공단은 급여 관리만을 해야 타당함을 요청합니다.

3.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돌보미 시설장(대표) 조건 강화의 건

현 사회복지사의 수가 5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장기요양이 실시되면서부터 시설장의 자격은 의료인과 사회복지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 5년의 경력(요양보호사 교재 참조)과 2년의 경력(사회서비스 제16조 별표 1)으로도 시설장과 대표가 되는 현실은 다년간 지속적으로 공부한 사회복지사나 의료인과는 달리 240시간의 교육(학력 및 나이무관)후 시험에 합격한자 주어지는 생병과 연관된 복지서비스의 질의 떨어질 수 있기에 제검토를 요청합니다.

4. 개인운영신고시설은 그 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되어진 사회복지법인시설과는 달리 순수한 개인자금출현으로 열악한 가운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시설 및 재가 평가 시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있어 평가기준을 이원화하여 적용해 주길 요청합니다.

III. 재가기관의 문제점 해결의 건

1. 재가센터 및 간호 부문에 있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결근으로 인한 공백 시 감산이 되어 지는바 자격을 갖춘 센터장이 필요시에는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단이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실행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현행 결직이 가능함에도 공단에서 임의로 제제 감산 및 환수 처리를 하는 부당한 일들이 발생함)

2. 방문간호 시 요청의 건

1) 간호 제공시 재료 대를 따로 추가청구, 수가 인상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2) 의사의 출장 또는 어르신 병원 방문 시에만 방문 가능한 방문간호 지시서는 때로는 방문간호사를 통하여 발급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 바라며, 단순 처치는 방문지시서 없이도 처치 가능 하도록 요청합니다.

3) 등급판정 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소견서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만 가능한 현행법을 어르신들의 진단서로 가능 하도록 요청합니다.

4) 등급별 월 한도액을 방문간호의 경우 모든 수급자는 월 1회 이상 또는 월 이용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요양, 목욕과는 별도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5) 4대 보험은 10인 이하 시설에 50%지원하고 있으나 재가산하 요양보호사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아 현행 60시간 근무만하면 요양사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출해야함은 부당하므로 80시간 조정안과 60시간 이하나 최저임금 시 4대 보험 적용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공무원의 횡포, 폐침죄 협박에 시설장들 분통

에 불응하면 폐침죄에 걸린다나오, 사실 서류를 준비하는데 때론 며칠, 빠르면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서류내용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이날 전국 개인운영시설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이구동성으로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의 횡포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가운데 각 당에서 나온 의원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호소한다면 반드시정책반영에 시설운영에 대해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로또지원금은 법적으로도 환수하라는 조항도 없는데 지자체는 시설보강비로 지원된 약 3천억 원을 시설을 그만두려고 하면 원금과 이자까지 다시 환수해 가려고 하는 횡포는 무엇인가? 약자인 시설장들은 공무원들의 횡포에도 당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공단의 힘은 너무 막강하여 횡포를 일삼기에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제공만 담당하고, 시설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자와 전문가 등이 협회에서, 등급의 평가는 의사와 전문사회복지사(석,박사급이상)가 담당할 수 있기를 건의했다.

더 이상 공무원들에 의해 시설장들이 인권을 무시당하는 일,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은 250억을 투자해서 보험공단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신선 봉사로 밤낮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시설장들에 대해서는 폐침죄 운운하며 협박이나 일삼는 공직자들의 횡포에 불만을 토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의 희망은 우리 시설장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허락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설장들은 새누리당 김선동 전, 의원, 민

건물 증·개축 지원계약서 제8조에 보면 상당기간 운영 후 설정해지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5년 정도 후 해지가 가능 할 수 있다고 한바 설정해지를 요청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건물증개축 지원계약서 제36조(지자체 마다 다름)

2) 사회복지시설 건물증개축 지원계약서 제36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장 제42조(보조금 등)와 제42조의3과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에 보면 개인시설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한바 지금 설정 해지가 빠르다고 하면 2013년 4월3일 신법에 의한 기능 보강이 필요하며, 2014년 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도 의무화가 되어 있는바 기능 보강비의 지원을 요청 합니다.

2. 신법 시설평수 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의 건

1) 현행 장기요양 시설 기준에 어르신 당 23.6㎡(7.15평) 공동생활은 20.5㎡(6평) 이어야하며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15.9㎡(4평) 일반이 거주하는 일반 주택은 1인당 21.2㎡(6평)이며 병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침실 면적은 장기요양(불편한 중증어르신)은 6.6㎡(2평)이고 공동생활은 5.0㎡(1.5평)이며 병원은 6.3㎡(2인 이상은 4.3㎡(1.3평)인바 현실성에 맞지 아니함으로 병원에 준한 기준(4.4㎡)으로 조정을 요청 합니다.

2) 장애인 시설의 경우 중증 장애인 침실면적이 3.3㎡이었지만(2006년 기준) 현재 6.6㎡로 강화된바 구법적용에 따른 예전대로 3.3㎡로 조정되어야 함을 요청합니다.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96:6-9)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예배를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세벽기도	매일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드림(수월)
수요 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8:00	본당	수요철야기도회
각 구역별 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 구역별 교우 가정	매일마다 주의 언행

교회학교 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목관	취학 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목관	초등학교 4~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목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동부	주일 오전 11:30	별관 교목관	중학생 및 통급반
고동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목관	고교생 및 통급반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5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6세 이상 미혼



당회장 엄영우 목사
(대기협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1동 1410-9
대표전화 : 031)384-7408 부목사실 : 384-9744, 385-8933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표어 :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담임 이재갈 목사
원신총회 총회장
본지 상임이사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성을 쌓아 영광을
2. 영혼의 전라지킴
3.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2012 목회 지침

내 장막터를 넓히라 (사54:2)
성령의 장막터를 넓히라 —은사
영혼구원의 장막터를 넓히라 —세계선교
성경의 장막터를 넓히라 —성경
축복의 장막터를 넓히라 —나눔

부목사 : 송승길

장로 : 박광순, 김희자

전도사 : 임시영, 최원희, 박애쓰

협동전도사 :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

개신대학원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살리는 신학과 살아있는
목회자와 사회복지를 위한
전문인 양성과정』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학위과정
(월요반, 화, 수요일, 토요일)

■ 학위과정 : 국내학사(신학, 사회복지학), 석사(신학, 목회학, 코칭학, 사회복지사)
박사(사회복지학, 코칭학, 목회학, 신학 박사), 기타학위과정

■ 자세한 문의 : 담당 과 동 훈 박사
(010-7405-9191)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 성도들에게는 축복을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담교회**
YEDAM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강석홍

예배안내

• 주일 오전 : 11시 • 금요일기도회 : 8시~10시
• 주일 오후 : 2시 • 새벽기도회 : 5시
• 수요일 예배 : 7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4동 2-316번지
☎ (교회) : 032-873-9585

† 예담교회는 예수님이 담장(울타리)이 되어 꿈과 환상을 교회입니다. †

다니엘서 프롤로그

나는 본지의 설교 코너에「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제하의 진리강해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디 되새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각자의 마음 판에 새겨지고,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으므로 이미 받은바「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제1부 보배로운 묵역, 제2부 보배로운 시련, 제3부 보배로운 믿음, 제4부 보배로운 그릇, 제5부 보배로운 피, 제6부 보배로운 산들 등의 진리를 믿고 생활 중에 깊이 묵상하길 바란다. 이 진리가 요나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는 자리까지 이끌 것이다.

금번 호 부터는「다니엘서 강해」(장한국 목사「다니엘서 강해」서울 : 주애출판사, 2000)를 통해 하나님이 ‘정한 시기의 양식’으로, 이때에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확신하며, 본인의 저서와 강론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본지에 기고하고자 한다.「다니엘서 강해」는 이미 주사랑 교회강단에서 선포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한교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증거 되었다.

또한 남서울 노회(웨신총회소속, 현 대한노회) 목회자, 교회지도자를 중심으로 다니엘서 강해(특강)를 2차(2009년 6월 29일과 8월 24일)에 걸쳐 강론한 바 있다. 그리고 2011년과 2012년 초까지 4차에 걸쳐 필리핀 세부시와 레이페시 등에서 본인의 저서「다니엘서 강해」를 영역한 A DEVOTIONAL AND EXPOSITORY STUDY ON THE BOOK OF THE PROPHET DANIEL 과「요한계시록」을 영역한 A DEVOTIONAL AND EXPOSITORY STUDY ON THE REVELATION 을 교재로 담임목회자 집회, 임마누엘 신학교 집회 등에서 강론한바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셨다.

이미 국내외에서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저스타임즈 지면을 통해서도 진리를 사모하는 신실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한 진리의 사랑을 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종말의 계시를 나타내 준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하셨다.

마지막까지 불함하게 하셨던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은 오늘 날 성령이신 진리의 영으로 때가 되매 밝히 열여주셔서 깨닫게 하신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신 은혜이다. 현재 우리는 인류의 종말에 살아가고 있으며, 역사는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계시대로 주 재림을 향하여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또 지

금 우리는 그 앞에 영광된 몸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서둘러야 한다.

아무쪼록 지혜롭게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모두 이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 큰 영적 유익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종말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종말과 성경적인 재림관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다.

다니엘 1장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서를 말씀 하시면서 다니엘서의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셨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할 때에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으라. 다니엘서를 읽고 깨닫게 된 자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의 양식’

실제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자, 즉 너희는 깨달아서 산으로 도망하라 하였고 또한 할 일들을 꼭 말씀하셨다.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환란이 있고, 환란을 지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마 24장 15절에 다니엘서의 말씀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성취될 말씀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다니엘서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 하신 것이다.

다니엘서는 1~12장까지 되어 있지만 내용 안에서 교훈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크게 있다고 봐야 된다. 다니엘서를 잘못 깨달으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달려 지는 책이다. 다니엘서 특히 2장, 7장, 9장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재림이 아니고 초림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인 것으로만 풀여가는 경우에는 요한 계시록은 과거에 끝난 말씀이지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다.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은 표리와 같다. 손등과 손안과 같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한 것이다. 다니엘서가 주의 재림에 관한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 비밀임을 먼저 깨닫게 되면 실제 역사적으로 실제 인물들로 나오고 있는 기록이지만 이것이 재림의 때에 연결되어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건, 이와 같은 영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실상으로 미리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이다.

오늘 종말에 특히 주의 재림 전에 있을 환란과 주의 재림에 관해서 신앙으로 크게 무장시키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이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 그리고 다니엘에 의해서 교육받고 훈련 받아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올라선 사도라, 메사, 아벳노그 이들이 모델 케이스이다. 언제? 종말에, 환란 날에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순교성도들의 모델케이스이다. 다니엘서가 실제 역사 속에서 유다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기록하면서도, 다니엘과 세친구들은 계시기관으로서, 종말에, 주의 재림 전에 있을 환란 날에 사역할 종들과 순교성도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서가 과거지사로 끝나버리고 역사적인 얘기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끝이다. 다니엘서가 과거 역사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다니엘서가 계시하고 있는 기록 목적이 주의 재림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적인 인물과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종말에 주의 재림 때에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

(1)주어가 하나님이다(1-2절).

1절에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주어가 하나님이다. 주어가 함은 문법 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강해서 자의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기명과 유다포로들을 잡아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에게 포위하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내려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바벨론 왕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됨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2절에서도 확인하고 있다.“주께서 유다 여호와와 김 왕을 하나님의 집 기명 일부를 그의 손에 주었더니”로 되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 예레미야가 증거한 말씀을 믿는 자들을 포로로 붙인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나라, 애굽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불인바 되지 않았다. 자기들의 평안을 구하며 나간 자들은 다 멸절되고 말았다.

이것은 앞으로 7년 환란의 날에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이더라’ 이런 말씀과 같은 것으로 받으면 된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붙이게 되어있다. 왜 붙이게 하느냐? 다니엘서에 답이 나와 있다.

〈다음호에 계속〉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웨신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2012년 뜻 깊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허식 목사

일천만 한국교회 성도들과 국가 안녕과 치안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13만 경찰관과 경찰관 가족여러분과 경찰선교에 힘쓰시고 계시는 각지방청 및 전국에 계시는 한국 경목총회 경목위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사랑하심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이민족의 오늘이 있기 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우리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과 충성된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 뿌림과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외교 국방 및 생산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애국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영광스러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 진줄로 압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현장 월남파병 장병들의 피땀과 중동건설 현장의 구슬땀과 세계열강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의 노고와 목일에 가서 수고하신 우리의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애국정신과 조선 철강 전자 무역 농 어업과 산업현장에

종사한 이민족의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의 희생적인 씨 뿌림과 6. 25 동란의 위기에서 유엔군 16개국 젊은 청년들이 이민족을 위해 흘린 피와 우리 국군장병들과 경찰관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해외 각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포들과 주재 대사관 영사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작금에 이 시대와 민족의 장래가 우리 모두의 어깨에 달려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자랑스러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과 성실과 근면으로 다 음세대를 위해 좋은 씨를 뿌리고 내일의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하고 손에손잡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 돕고 하나님과 이민족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업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계시하고 있다. 성경은 죄와 고통의 오랜 역사를 넘어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그러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한 수천 개의 언어들...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언어로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2005년 5월에 SIL(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국제언어연구소와 한동대학교의 협력으로 한동대통역번역언어대학원에 세워진 아틸라...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전 세

독립적이 인격을 외면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선교는 현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세우고 현지인과 협력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다.

아틸락은 성경번역과 성경번역을 통한 문서선교로 선교지의 지역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선교현장의 차세대 리더자들을 세우기 위해 전문학술훈련과 선교전문지식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사모하는 기다림을 가르치고 있다. 그 이유는 선교는 성령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성경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창1:1)

계 언어사역자를 양성하는 전문학술훈련기관이다. 아틸락은 지금 세계 선교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아틸락의 소장이신 정제순 선교사는 아틸락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전 세계의 선교 현장에 격차가 너무 심하다. 격차라는 것은 선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선교사들이 가서 해 주는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서구 선교가 쇠퇴하면서 아시아권에서는 더 많은 아시아권의 지도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가서 현지인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만 한다는 것이다.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을 하다 보니 정작 현지인들의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역과

또한 아틸락의 소장 정제순 선교사는 지금 제 3세계의 교육 수준들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전문사역 선교사 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사는 현지인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선교사들은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사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아틸락을 통해 제 3세계와 수 많은 선교지에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보고 같이 기도도 동참하였으면 한다. 아틸락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번지 한동대학교 안에 있으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아틸락의 언어사역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있다.

포항지사장 이기학 기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추수감사를”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궤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추수감사를”

사랑.섬김.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희망원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추수감사를”

MTR-school 성경 연구원

구역(벤아세르 MT)과 신약(TR원문)에 의한 강의로 사도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인 교육

- 계시록원전
- 히브리어문법
- 헬라이어문법(전 준덕 교수)
- 일기쉬은 52주 헬라이어문법 저자 강의
- 영어문법
- 계시록



원장 김수정
(jntv방송신문 운영이사)

- 일시: 매주 화 오전 10시부터 강의 시작
- 장소: 다메섹교회 (담임목사: 이원정)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산1번지
031-765-2791, 010-2787-1038
- 문의: 031-767-7651, 010-6202-6312
김수정 원장(010-7520-7651)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추수감사를”

지저스타임즈
광고안내

www.cpj.kr(크리스찬포토저널)

CPJTV인터넷방송

www.jtntv.kr(jtntv방송)

JTNTV인터넷방송

인터넷방송 : 배너광고 및 팝업광고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21개 지사와 해외 26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신문과 인터넷방송입니다.

지면을 통한 신문 지저스타임즈(격주신문)가 있어서 광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문과 인터넷TV방송에 광고를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힘쓰겠습니다.

본 사 : E-mail : jtntv@hanmail.net

웹 하 드 : ID : cpjkr PW : km1122

본사문의 : 032-672-3031(팩스겸용)

070-8230-0034

대 표 : 010-5468-6574

본 사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편 집 국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2층 202호)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필박과 순교의 신앙으로 보존 되어가는 성경계열과 헬레니즘사상과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사상과 뉴에이지(New Age)사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는 변개 되어가는 성서계열로 이어가는 성경의 두 뿌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하여 전하여준 것을 선택의 후손들이 원시(原始) 교회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지킴으로 필박과 순교를 당하는 때에 예루살렘에서 떠나 안티오크로 가게 되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여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안티오크에서부터 보존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는 끝임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필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보존해 오고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계열은 남자의 후손들 중에서 함족의 후손들이 이집트 북부 지중해에 접해 있는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 한후에 수도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다.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로써 중동과 인도와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하므로 문화와 과학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BC 235년경에 사라피스 신전에 도서관을 설립하여 그리스 문학작품과 각 나라의 문학작품들을 모아서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세계적인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 사상과 헬레니즘문화와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에 의한 영적 흐름을 가지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서가 번역되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의 이원론사상과 철학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를 종교의 원리와 철학 사상들로 펼쳐서 하는 중심지였다. 최초의 성서학교도 세워졌다. 필로로 시작하여 펜타누스에게 그다음에는 클레멘트에게 그다음에는 오리겐에게 전해져서 이 사상아래서 오리겐은 6만 성경을 편집했다.

1란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기록하고 2란은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헬라어로 음역한 것을 기록하고 3란은 아퀼라(Aquila, A.D. 95~135년)의 역본을 기록하였다. 아퀼라는 예비온파로 산상수술 같은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은 따랐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따르지 않으므로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구원의 교리는 배척하였으며 또한 아퀼라는 이사야 7:14절의 처녀라는 단어인 '알마'(Alma)를 '네아니스'(Neanis)로 짤은 여인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처녀를 짤은 여인으로 번개시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인하는 근원을 시작한 것이다.

4란은 심마쿠스(Symmachus, A.D. 160~211년)의 역본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마쿠스도 예비온파와 영지주의자였으며 동시에 유대교도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바울서신들에 있는 모든 내용과 바울의 모든 서신을 배척하였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모든 구약의 말씀을 삭제하였다.

5란은 오리겐 자신의 역본을 실었다. 오리겐의 헤사플라의 제5란은 70인역의 개정 본으로 간주해 오고 있다. 마치 막 6란에는 데오도티안(Theodotian, A.D. 140~190년)의 역본이 자리 잡은 성서를 편집했다.

70인역 구약성경은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BC 250년경에 70인역으로 토라(율법서)를 가장 먼저 헬라어로 번역하였다. 70인역은 표준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적 사교를 그대로 표현하기 위하여 번역이 아닌 음역으로 된 구절도 많이 사용하였다. 오경의 번역은 관용구들을 많

이 사용하여 전통원문과 거의 일치하도록 번역 되었으나 쉬무엘(사무엘)과 이욐(욥기)은 상당한 번역 원문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르메아(에레미야)는 전통원문보다 1/8가량이 삭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70인 역은 전통원문이 아닌 다른 사본에서 번역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구약성경의 목록순서도 전통원문성경과 70인역 번역 성서들의 순서가 다르다. 신약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사본에는 마1:1~25, 요 6:50~8:52, 고전 4:13~12:6절이 삭제되어 있다.

클레멘트 1, 2서와 솔로몬의 시편은 첨가 되어 있다. 시내사본은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이 난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시간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본문이 막16:9절에 있다. 이 사본들은 삭제되어 있다.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아침이라는 단어를 첨가하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였다.

바티칸사본은 막16:9~20, 요7:50~8:11절이 삭제되어 있으며 이 사본에는 구약 70인역과 신약과 므나세 기도서와 마카오베서를 제외한 외경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양파지에 언설체(대문자)로 기록한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고 현대역본성서들과 같다고 하여 아주 귀하게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계열을 믿는 자들은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서계열

않는다. 천주교에서도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야벳의 후손들이 대포 등 전쟁무기를 발달시키고 과학문명으로 전기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전 세계는 함의 후손의 시대에서 야벳의 후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을 점령하기를 시작하였다. 종교계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근본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등 개신교가 시작되었다. 그리하면서 최초의 성경학교 교부들의 신앙이 전수되는 신학교가 세워지고 안수하여 목사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나가고 있다. 이 시대는 자유주의 신앙과 뉴 에이지(New Age)사상과 종교다원주의로 오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에서 만인제사장설과 만인구원론으로 더욱 넓게 모든 종교와 화합을 이루어야한다는 사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WCC). 야벳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의 성서인 알렉산드리아사본(소수필사본 계열)에서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고등 비평하여 중립사본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서를 편집하게 되었다.

로마에서는 라틴 베르제트 성서를 만들어서 성직자만이 읽게 하고 성도들은 금서로 읽지 못하게 하기도 했었다. 영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버리고 에덴동산의 실제와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는 웨스트코트(Broke Foss Westcott, 1825~1903)와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가 1881년에 WH판을 편집했고 1898년에 독일에서는 자유주의 신앙의 신봉자인 네슬과 알란드가 편집한 성서 NA 1판~26판을 편집했다.

자유주의 신앙과 뉴 에이지(New Age)사상을 가진 자들이 연합성서공회를 만들어서 NA 24판~26판을 모체로 UBS 1판, 2판, 3판과 GNT 4판을 편집하여 각 나라마다 성서공회를 세워놓고 이 원문에서 번역한 것을 교인들이 받아 들이고 각 교회에 교인들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자유주의 신앙과 뉴 에이지(New Age)사상과 종교다원주의에 의한 성경 해석으로 교인들은 바벨화 된 신앙생활을 하며 기복주의 신앙생활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고 있다. 가장 신실한 삶을 살아 가야하는 교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갈 힘을 빼앗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신사참배를 교단에서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하여 신사를 참배케 하였듯이 교단들이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72,120여 곳을 개정한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성경에는 13구절이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7구절은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등 30여 번 이상 삭제하고 십자가, 정직, 거룩이란 단어도 삭제한 성경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7절을 삭제하였다. 삭제 첨가 오역 등의 단어가 로마서 단어 수 분량 만큼이다.

이제는 원시교회 신앙(사도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계열에서 번역되어지는 성경을 찾아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므로 헛되이 믿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롬10:17). 교단의 교리와 교파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 일치화로 피로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면서 의와 화평과 기쁨(롬14:17)의 신앙생활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므로 헛되이 믿는 자가 되지 말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의 성서를 가지고 믿으면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상관없이 성경과도 전혀 상관없는 여호와와 절기도 아닌 사람들이 제정하여 지키는 태양신(太陽神)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을 기독교화하여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상관이 없는 달신(月神)인 사악한 이방의 여신인 이스테르가 부활하였다는 춘분날을 깃 점으로 이스터 데이(Easter-Day)를 정하여 지키게 된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방 여신의 날로 일컫는 망령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속아왔고 속였다. 회개하고 진리의 영이 임하여 거짓 영에서 떠나야 하겠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영감이란 신약에 단 한번 나오는 단어 데오 퓨뉴스토스(θεοευιστοςς)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은 성경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까지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시험과 육의 시험에서 승리하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만석(롬14:10)에 서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상천년의 왕국이 지난 후에 모든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끝까지 믿는 신앙을 지킨 자는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의 예배의 삶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마라나타 아멘.

김수정 원장

성경연구원
jintv방송신도
운역이사

황성주 박사의 건강학

운동이 성인병을 고친다! (43)

"행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시 133:1)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보면 나도 모르게 피곤이 풀리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피곤해지는 상대가 있다. 전자의 경우 어쩔지 마음에 끌려 친해지고 싶은 열망이 켜트는 반면 후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야하는 상대가 아닌 다음에야 다시는 만나기 싫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긍정적인 대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훌륭한 방법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인간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인격체로 대하는지, 아니면 수단으로 대하는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유언처럼 주신「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처럼 소중한다고 하겠다.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덩달아 건강해지듯 성숙한 신앙과 인격도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영적 기류에 편승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지금은 선교사후편을 받기위해 외국에 계시지만 필자가 있을 수 없는 어느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 분은 이비인후과 의사고 작년까지 부산에서 조그만 개인병원을 운영했는데 그분의 병원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물론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도 있었지만「그 분을 만나 이야기하면 마음이 평안해진 다」며 대화를 나누기 위해 찾아온 분들도 많았다고 한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할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맑고 싶은 사람」「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나에게「만나면 피곤한 사람」이라는 레테르가 붙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대화가 얻은 것 없이 실망으로 끝나는 이유는「성의부족」인 경우가 많다. 준비 없는 대화, 자기중심적 대화는 상대에게 흥미를 잃게 하고 결국 정신적·육체적 피로

를 유발하게 된다.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다. 모처럼의 대화가 자기과시나 남의 험담으로 일관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부정적이고 어두운 분위기에 갇히기 쉽다. 건강한 대화가 건강을 낳는다. 건강한 대화를 나누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좋은 사람 = 좋은 대화」라는 공식을 기억하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대화는 본질적으로「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성령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스트레스를 녹이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유언처럼 주신「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그리스도에게 생명처럼 소중한다고 하겠다.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덩달아 건강해지듯 성숙한 신앙과 인격도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영적 기류에 편승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황성주 박사



“추수감사예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담임 정연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정규예배

주일 전례예배(주)	오전 9시 (미인보우이트홀)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4층동)
주일 헌당예배(주)	오전 11시(미인보우이트홀)	이동부 예배	주일 오전 11:00(교목관)
주일 청년예배	오후 2시(미인보우이트홀)	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미인보우이트홀)
주일 오후예배	오후 3시(미인보우이트홀)		

기도회 및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3:00(미인보우이트홀)	금요일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4:00(미인보우이트홀)
수요기도회(주)	매주 수요일 오전 10:30(미인보우이트홀)	신약연구회	주일 오전 9:00(미인보우이트홀)
수요기도회(부)	매주 수요일 오후 7:30(미인보우이트홀)	경로교	매주 수요일 오전 11:00(미인보우이트홀)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인전광역시 계양구 마정로 546(효성동) (인전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98-1)
Tel. 032)552-5200 Fax. 552-5204

“추수감사예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담임목사 오종철

2012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분	시 간	순번	구분	시 간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1	총신사모아카데미	월요일 오전 11: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2	바울교실	주일 오전 10: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3	학구교실	주중 오전 12:00
수요 밤 예배	수요일 밤 7:30	4	재지훈련	주중 평안시간
공요성성지유심회	공요일 9:00	5	순도인 축구교실	주일 오후 3:00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7	순도인	주중 매일
중, 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8	재직단련	주중 매일
대학부	토요일 오후 6:30	9	홍익아동발과주교실	주중 매일
성년회	토요일 오후 6:30	10	총신성경대학	오전반 [수, 목] 오후반 [화, 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추수감사예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s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 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오전 9:00	4층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나사렛성전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대예배실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주 일	오후 3:30	대예배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5:00	4층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4층
성경대학	금요일 오전 9:00, 오후 8:0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나사렛성전
셀 예배	각 셀 예배	셀 가정방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 02)3402-2714

“추수감사예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령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이정민 목사(Mi nis 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장 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지난호에 이어서〉

포터 박사가 1969년 5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지에 “W.C.C는 만일 폭력이 정치적, 경제적, 독재를 전복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면 그 폭력을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폭력 혁명을 선포하였다. 또 기독교 사상 1972년 11호에서 “폭력 혁명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기독교의 봉사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이러한 공산 혁명교업을 교회가 본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원조를 끊어야 한다”고 에큐메니칼 리쿠지에 발표하였다.

포터 박사의 해방의 뜻은 자본주의로부터의 해방, 계급 사회에서의 해방을 말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맑스주의, 옹공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중생,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한 구원, 죄에서 해방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옹공적 계급과 조직에 의해서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 자본주의의 계급 구조에서의 해방을 말한다. 그것은 실로 옹공주의적 활동을 의미한다 (박영호, W.C.C 운동 비판, pp.88~99).

IV. W.C.C의 신정통주의 성경관
칼 바르트는 19세기 해방의 역사주의적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자유주의를 형성했는데 그는 기독교의 계시성에 있어서 초역사적 차원을 강조했다. 그것을 역사 (History)와 참 역사 (Geschichte)로 설명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참 역사적인 것이라 했다. 또한 그는 “성경 자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거에 불과하며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인간적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오류 투성이의 성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의 증거로 사용하실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동이 없으면 인간의 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감동된 성경 말씀이라도 다음에 또 읽을 때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이다(박영관, 역사 신학 강의, p.259).

마두원 선교사는 W.C.C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위와 같은 신정통주의 성경관을 신봉하는 자들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었다(마두원, 두길, p. 165). 이에 박영호 박사는 그의 저서 ‘W.C.C 운동의 비판’의 결론에서 W.C.C 성경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W.C.C는 말하기를 우리는 성경을 비판하고 심판한다. 또한 성경은 통합의 힘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교의적 신학에 있어서 신빙성 있는 자료 집으로 알려졌던 시대에서는 분명히 분열의 요인이었다. 성경의 권위는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린 성경 그 자체만으로는 권위가 될 수 없음을 말하

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영호 박사는 이와 같은 W.C.C의 선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신정통주의적, 실존주의적 성격이라고 평했다(p. 139). 1980년 미국의 ‘Glock and stark’에 의하여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W.C.C에 가입된 연합 감리교 신도 88%, 연합 장로교회 신도 87%가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1982년 10월에 미국에서 아주 간단한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이 출간되었는데 구약은 50%, 신약은 25%나 삭감하였다. 이 성경은 신.구약 80만 단어중 40%나 되는 35만 단어를 삭감했고, 소설책처럼 장, 절도 붙여 읽지 않고 비방학적인 요소들은 모두 빼어버렸다. 이 성경은 W.C.C에 가입한 미국 자유주의 교회 32교파의 400만 신도가 포용하고 있다(이광복, 카톨릭과 W.C.C 비판, p. 62).

V. W.C.C의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1970년대에 남미에서 정치 경제적인 자유를 박탈 당한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신학 이론이다. 정통신학이 개인의 영혼 구원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해방신학자들은 현실 사회를 조직적인 억압 사회로 규정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임무라고 본다(박영호, 해방.민중 신학 문답, p. 19). W.C.C의 제5차 총회가 1975년 아프리카의 케냐 나이로비에서 286개 교파에서 747명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이 총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하고 연합하게 한다” (Jesus Christ frees and unites)였다.

이 총회는 적도 이남에서 열린 최초의 총회로 로마 교황청이 파견한 16명의 천주교 대표자들을 비롯하여 불교, 힌두교, 모슬렘교, 유대교 등에서도 많은 옵서버로 참석하였다. W.C.C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 종교들과도 혼합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를 매우 중요시 하였다. 그리고 이 총회에서 ‘해방’을 다음과 같이 여섯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① 오늘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② 연합이 요구하는 것, ③ 공동체에 대한 추구, ④ 해방과 공동체를 위한 교육, ⑤ 불의의 구조와 해방을 위한 투쟁, ⑥ 인간 발전,

이 총회에 대하여 복음주의자 협회의 보고서에는 노어워크 이리(Norwalk Yri) 박사의 다음과 같은 글이 기재되어 있다.

“... 나이로비의 W.C.C 회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기 보다는 아프리카 통일 기구 혹은 기타 경제적, 정치적 집회라는 느낌이 더 짙었다...”

그 집회는 영적인 표현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 점에 관한 예를 든다면 나의 기억으로는 그 회의가 기도로 시작되거나 기도로 끝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박영호, W.C.C 운동 비판, p. 72).

이 회의의 마지막에 가서는 최종 예배 집회에 탠스파티가 포함되었다. ① 의장대가 합창을 하고, ②토인들은 춤을 추고, ③설교자들은 단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④유대교 랍비, 힌두교, 불교, 천주교 등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록(Rock)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해방이다 해방이’라고 노래하였다(이광복, 카톨릭과 W.C.C 비판, p.65).

VI. 비성경적인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Ecumenical) 혹은 에큐메니즘(Ecumenism)이란 말은 헬라어의 ‘오이코스’(집 혹은 거주, 식구)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에큐메니칼은 ‘오이쿠메니코스’의 파생어로 ‘사람 사는 땅에 관련된 것’ 혹은 ‘사람 사는 땅만큼 넓다’라는 뜻이다. W.C.C 총무였던 후프트는 역사적으로 에큐메니칼이란 말을 다음 7가지로 지적했다.

①인간이 거주하는 전 지면을 나타내는 말, ②로마제국의 전 판도를 나타내는 말, ③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말, ④전체 교회가 타당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 ⑤교회의 전 세계 선교에 관계된 말, ⑥둘 이상의 교회들간의 연합에 관계된 말, ⑦그리스도인의 일체성을 인식하며 이루고자 하는 태도나 활동을 의미하는 말 등이다.(박영호, W.C.C 운동 비판, p.85).

한마디로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려는 운동이다. W.C.C 운동의 주도적인 신학자 존 맥케이(J.A. Mackay) 박사는 W.C.C는 전 세계 교회의 가전적 통일임을 지적하면서 말하기를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도적 지도자들은 기독교회의 가전적이며 조직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그들의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1948년에 W.C.C가 처음 암스텔담에서 모일 때 주제가 ‘하나의 세계에 하나의 교회’ (One world, One church)였다.

W.C.C 를 배격하는 7대 이유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많은 교파들을 통합하면서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심지어는 이방 종교들과도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들은 이방 종교와 대화를 중요시 하고 있으며 불교, 유교, 마호멧교, 유대교, 힌두교 등 그밖의 다른 여러 종파를 포함한 일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연합 운동이 하나의 큰 창녀 운동임을 지적하고 있다. 성경적 일치 운동은 성령으로 증생한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 일치를 말하고 있다(엡 4:3~6).

진리가 다른 이질적인 단체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증언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셨다(창 1:5,6). 흙탕물과 맑은 샘물을 섞으면 혼수(混水)가 되어 맑은 물 속에 사는 고기들이 모두 죽는

독교의 신앙 운동이 아니고 배교의 불신앙으로 타락한 자유주의 교회의 연합 단체이다. 또 W.C.C는 이단자요, 맑스주의의 좌파이며, 초교파주의자, 인문주의자, 적그리스도의 매춘부 운동”이라는 말에 보수주의적 전통 교회 입장에서 찬사를 보내면서,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 타고 가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박살났듯이 W.C.C라는 큰 바벨선이 침몰하기 전에 잘 알지 못하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외치는 마지막 때 전사의 사명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W.C.C)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도다”(계 18:2).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

VII. 악령들이 모이는 귀신의 집합체 처소

바빌론은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악령들의 처소이다(계 18:2). 원

다. 죽은 송장과 산 사람을 한 곳에 묶어 놓으면 산 사람도 송장의 독기로 인하여 함께 죽고 만다.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하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22) 이 기도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우리의 일치는 같은 성령 안에서 진리의 동질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연합 운동은 도두 사단적인 혼합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일치를 구실로 삼는 사단적인 연합 운동을 경계해야 한다. 진리가 잘못된 연합 운동은 일치가 아니라 혼합이다.

혼합은 곧 바빌이다.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하셨다(암 3:3). 신약시대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망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희는 저 회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후 6:14~17).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적 일치를 힘써야 한다(엡4:3). 그리고 불의와 짝하는 일치를 가장한 사단의 혼합 운동은 배격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W.C.C 운동의 비판’에서 박영호 박사가 지적했듯이 “W.C.C는 성경적 기

운을 직역하면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계 18:2).

1955년에 대집회가 ‘카우 팔레이스’라는 곳(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 있음)에서 열렸는데 소위 종교축제(宗教祝祭)라는 모임이었다. 그 집회는 유엔(국제연합기구)을 위한 기도회를 목적했으며 유엔창립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집회였다. 약 15,000명이 참석했다고 하며, 이 집회는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의 주최였다. 단상(壇上)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대표자들이 있었으며 그중의 회장 한 분은 W.C.C 직원인 놀데(O.F. Nolde)씨였다. 그 때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 집회에는 유대교, 이슬람교, 공자의 유교, 마하이고, 모하 메트교, 불교와 기독교의 대표자들이 모였다.

교육문 낭독이 있었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참석한 각종 종교의 신앙에서 발취한 문장이나 시구(詩句)들을 교육했다. 그 교육문 가운데는 코란경이나 종자의 문헌이나 불교서적에서 취한 문장들과 성경 구절도 있었다. 불교의 염불을 비롯하여 모슬렘교, 바하이교, 유대교, 및 기독교인의 기도가 있었다. 기도 직후에 찬양대의 송영은 힌두교도로서 존경받은 인도의 간디가 쓴 시구절(詩句節)이었다.

모인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각자 자기의 잡신에게 염불이나 기도를 했다. 여기서 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만방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시 96:5)했기 때문이다. 또 “염방의 우상은 은금(銀金)이요 사람의 수공품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으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시 135:15~18)라고 했다(마두원, 두 길, p. 119).

W.C.C 제7차 총회가(1991년 2월 7일부터 20일까지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4천여 명의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W.C.C는 1975년 나이로비 때부터 타종교와의 대화라는 차원에서 불교, 힌두교, 모슬렘교 대표들을 초청하여 환영했으며, 대회의 주제는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택했다. 대회의 중심적인 주제에서 성령을 강조한 점에 대해서 주목을 끌었다. 또한 그 주제가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때와 달리 특이한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타종교와의 대화 부분과 위원장인 스리랑카 웨슬리아 아리아라자 박사 박사 논문에서 저들의 속셈이 드러나고 말았다. “힌두교인의 기도는 누가 들으시나? 하나님은 다수인가? 시편 24편에 의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보존자가 되신다 하신다.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시라면 힌두교인도 불교인도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 구원하시고 저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은 아니다”아리아라자 박사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방자하여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주제 강연자로 나선 한국의 젊은 여성 신학자 정현경 박사의 깜짝쇼였다. 그녀는 무대에 호주의 원주인 두 사람과 한국의 풍물패를 섞어 놓고 춤을 추게 한 후 무속적인 정령(精靈) 신앙으로 마치 무당이 춤을 추면서 신을 부르듯이 기원한 것이다. 그는 ‘한’ 맺힌 영혼이 성령의 초상이라고 하며 고향을 버리는 곳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실리라. 그곳에 정교수의 초혼체 내용을 직접 읽어 보면 필자의 말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W.C.C의 좌경성에 대하여는 1982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재된 조셉 해리스의 글을 소개한다.

〈다음호에 계속〉

손기태 박사
AVA 아카데미,
마라나다 한빛교회
담임목사
JTNTV방송,
본지 상임고문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표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요16:11)

“새빛중앙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오직 예수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초대교회적인 순수한 교회로서 말씀과 찬양이 함께 하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담임 **지태일** 목사

<예배 시간모임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분당 주일학교 주일오전 9:00 (초·중·고·대학생)
주일침례예배 오후 2:30분당 유치부 주일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분당 구역예배 (토) 구역별
청년부 오후 1:20
금요기도회 (토) 오후 9:00 새벽기도회 (주일·금) 오전 5:00*로 환영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빛중앙교회**
SEBIT CENTRAL PRESBYTERIAN CHURCH
446-9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298-17
☎ 031) 284-3927, 3926, www.sebit.or.kr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담임 **이재성** 목사

신천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예배	1부: 09:00 (오전) / 2부: 11:00 (오전)
주일오후 예배	02:30 (오후)
삼일기도회	07:30 (오후)
새벽기도회	월~금 05:30 (오전) / 토 06:20 (오전)
부서별기도회	금요일 09:00 (오후)
새가족	12:30 (낮)
청년부	02:00 (오후)
청소년부	11:00 (오전)
초등부(1~6학년)	09:00 (오전)
유치부(6~7세)	11:00 (오전)
영아부(3~5세)	11:00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천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동 1612-7
☎ 02)859-3671 FAX 02)859-3673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특별예배나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 강의내용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 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 여종 특별할인

♣ 참석자 전원에게 ‘언약의 무리’ 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견웅)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생**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일파과정	오후6(주일)
다사이콜스	오후 7:30(화)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학교	오전 9:20
WWA영재교육	오후 1:00(토)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청년부	오후 7:30(토)

담임목사 : **김능주**

찾아오시는 길

대전예수교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오산시 원동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http://www.반석교회.kr

연신원, 제17대 총동문회장 이경은 목사 선출

수석부회장 강영선 목사... ‘마음 상하게 하지 말자’ 다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제17차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5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2층 중연회장에서 개최되어 수석부회장 이경은 목사(진주초대교회)를 연신원 제17대 총동문회장에 선출했다.



이어 강영선 목사(순복음영산교회)를 수석부회장에 선임하고, 배진구 목사를 사무국장에 유임시켰다. 그 외 서기, 회계, 총무 등은 신임회장 이경은 목사에게 전권을 주어 신 임원 및 총무를 선정하여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신임회장 이경은 목사는 “여성 목회자로서 총동문회장이 된 것이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은혜는 못 끼쳐도 마음 상하게 하지 말자, 그런 목회를 하고 있고, 감동 목회에 있어서 성도들에게는 감동 목회가 쉽지만, 목사님들을 감동시키기는 좀 어렵다 하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잘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장인사로 한마디 드리는 것은 잘 부탁드립니다”하고 인사를 했다.

이어진 회무에서 모든 안건은 신임회장에 입안한다는 결의로 모든 회무가 폐회되고, 총동문회장 이경은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이날 이경은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이금옥 목사(운영부회장) 김문회 목사(총무), 정상업 목사(선교부회장), 서재은 목사(부회장)가 특별기도를, 엄기영 목사가 성경봉독을, 김현수 목사(총동문회장)는 “그러나와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김병은 목사(증경회장)축도로 마쳤다.

이후 정월로 목사의 사회로 2부가 시작되어, 격려사를 엄인형 목사(증경회장), 축사를 이양호 목사(대학원장 겸 학장), 축하연주에 천지현(난타/꿈너머꿈교회), 격려사에 홍재철 목사(증경회장, 한기총대표회장), 권면에 황원택 목사(증경회장), 축사에 엄정목 목사(증경회장), 장항희 목사(증경회장), 이양호 목사가 총동문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하-연신원) 총동문회장 이경은 목사 취임식은 청원 진주초대교회에서 오는 21일(수)오전 11시에 갖는다.

18대 대선 음란패륜 ‘하이에나 族’과 혈투

김정은 “박근혜 초전박살” 선거투쟁지령 종북 세력 총동원 가세

북한 김정은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한 선거에 직접개입 선거를 망치거나 북에 우호적인 야권단일화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타도 대상으로 낙인찍고 당선을 저지 또는 제거하려고 혈안이 됐다.

19일 현재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공식 후보 박근혜와 새누리당 임의후보 이재오, 민주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진보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박광수, 박종선, 강기원, 안철수, 이견재, 김순자, 김소연 무려 12명이나 등록이 돼 있다.

12명의 예비후보 중 몇이나 11월 26일 마감까지 후보로 등록할지는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다. 특히 표면상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협상 성사여부, 심상정 이정희의 단일화 동침여부와 그 시기가 주목이 된다.

12명의 예비 후보 중, 새누리당 짝꿍 후보 이재오와 11월 9일과 11월 12일 마지막 예비후보로 추가 등록된 김순자(여, 57세, 민노총, 청소부), 김소연(여, 42세, 민노총 급속노조 기동전자비정규철폐운동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심상정, 김순자, 김소연이 1:6의 장내 대결을 펼치고 링 밖에 남민전 이재오가 ‘하이에나 전법’을 펼쳐려 한다.

장외에서는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를 중심으로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김정일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김정은을 비호하는 종북 세력인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까지 투쟁에 돌입했다.

실제로 5·18선전대경력과 국보법위반 전과자 홍성담(57세)이 종북원로를 자처하는 백낙청과 강만길 등이 만든 평화박물관에서 박근혜 출산기념을 악용, 여성의 신비주의를 벗겨내기 위해 ‘출산 장면 그림을 전시한 것이 민중투쟁전개이다.’

홍성담이란 선동 그림쟁이가 일시적 비난을 각오하고 노리는 것은 자극적인



그림을 SNS를 통해 급속 확산시킴으로서 현실과 가공에 대한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박근혜 출산설을 통설로 고착하려는 악랄한 의도와

지명도 높인다.

이는 탄핵여풍 속에 121석 개헌저지선을 만들어 노무현의 적화음모를 파탄낸 박근혜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 국민적 인기와 지지도를 무너트리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나체 패러디”를 이틀이나 게재했던 사건과 궤를 같이 한다.

2004년 7월 13일 박근혜 나체 패러디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노무현 잔당이나 박근혜 출산장면그림을 전시한 홍성담은 ‘살인이나 패륜’ 어떤 행위도 공산혁명에 도움이 되면 정당하다고 믿는 종북 반역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홍성담(57)이란 자는 누구인가?

1955년 전남 신안 출생, 79년 조선대 미대를 졸업한 뒤 80년 광주민주화운동선전요원으로 활동했다. 80년대 대표적 민중미술가 그룹인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참여했다. 89년 북한의 평양출전에 ‘민족민중 미술인 전국연합’이 공동제작한 ‘민족해방운동사’사진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조선닷컴 캡)

노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유만석 목사, 세계선교를 품는 ‘꿈의 성전’ 입당예배 드려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꿈의 성전 입당 및 담임목사 위임



예장 백석총회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담임목사는 수원시 권선동 소재에 170억을 들여 바닥면적 6,398.64㎡ 위에 ‘꿈의 성전’ 새성전 입당예배 및 유만석 담임목사 위임식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교회의 은혜’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예장 백석총회 수원노회 산하 수원명성교회(담임 유만석 목사)는 본당 3천석 규모

의 ‘꿈의 성전’에서 지난 3일 오후 3시 입당 감사예배가 드려지고 동시에 담임목사 위임식이 거행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날 유만석 담임목사는 “오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동안 함께 해온 사모와 온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서 “꿈의 성전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꿈을 주고 지역과 온 세계를 복음

화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김삼환 목사(명성교회)는 ‘교회의 은혜’란 제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고 예배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한다”면서 “새 성전을 지은 명성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유만석 목사의 사회로 수원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명재 목사의 기도와 수원노회 서기 최원복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삼환 목사의 설교와 중부시찰장 김자중 목사의 헌금기도에 이어 강문자 권사의 교회약사와 장복현 장로의 건축결과보고가 있는 후 감사패 수여가 있었으며, 증경총회장 장원기 목사의 권면과 백석예술대 김기만 총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또한 2부 축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표, 남경필 국회의원, 정영근 총회장의 축사에 이어 아동국과 명성소년소녀합창단, 학생국, 엘림&헤세드중창단의 축하공연이 진행된 후 담임목사 위임식을 가졌다.

위임식에는 부노회장 이원석 목사의 사회로 증경노회장 김봉태 목사의 위임목사 소개와 위임국장 안순동 목사의 서약 및 공포, 위임축하패 수여가 있었으며, 증경총회장 최낙중 목사의 권면과 한장총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의 축사가 있는 후 추연동 장로의 광고와 증경총회장 홍태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성전입구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꿈의 성전은 지난해 3월 기공식을 가진 후 1년 8개월 만에 입당예배를 드렸으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총공사비 170억 원이 소요됐다. 지하 1.2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등이 지상 1층은 행정실, 목양실 외에 일반인에게 대여해 주는 다목적웨딩홀과 카페가 마련돼 있다. 2층에서 4층은 대예배실과 소예배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5층은 게스트룸이 육상온하늘공원 등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웨신 97회기, 총회 · 노회 임역원 단합대회 성료

목대원 개설과 활발한 영입활동으로 교세확장에 매진할 터

제97 회기 웨신교단 단합대회가 지난 11월 12일~13일 양일간 충주 수안보 한화리조트온천에서 개최됐다.

총회와 19개 노회에서 110여명의 임역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년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월악산을 가득 메운 열기와 업그레이드된 총회의 위상으로 "부

흥하는 총회"의 자화상과 역할로 웨신의 새 역사를 써가며 꿈을 이루자는 총회장 이재갑 목사의 설교와 오직 말씀중심의 개혁적인 삶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항존하는 교회로서 시대의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웨신총회의 비전을 제시한 웨신대학 김성욱 교수의 열강으로 총회, 노회 임



역원의 단합대회의 열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이날 참석한 총회, 노회의 임역원들은 각노회를 소개하고 자랑하며 함께한 모든 분들과 손잡고 협력하며 웨신공동체에 몸담고 있음을 감사했다.

한편 총회는 노회장으로 취임한 19명의

노회장들에게 취임축하 패를 전달했고 특별위원과 웨신 목대원 자문위원 등을 위촉했다.

아울러 웨신총회는 추후 적절한 시기에 웨신 목대원 개설을 실시하기로 하고 총회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 강도사 고시 및 전도사 고시를 공고하며 활발한 영입활동으로 교세확장을 힘써서 제97회기 내에 500교회를 돌파하기로 다짐하고, 화합과 존중의 마음으로 더욱 큰 희망과 기쁨을 나눈 가운데 단합대회가 막을 내렸다.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직 상임이사 / 대한노회 노회장)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요 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벽 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 010-4436-7060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행복복선인지유센터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기독교인터넷방송부흥협의회부총재
- 지저스타임즈 대주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복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후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생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이 외에도 많은 간증문이 있습니다.

집회특징

- ♥ 신유, 예언, 상담이 정확함(사 11:2, 요엘 2:28)
- ♥ 병 고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행 19:11-12)
- ♥ 원인 불명의 불치병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시 41:3)
- ♥ 성령의 기쁨부음으로 은사 접촉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 ♥ 회개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막 16:17-18)
- ♥ 사명이 회복(목회, 전도, 봉사, 섬김)되는 성회(엡 4:11-12)
- ♥ 첫 사랑과 전도의 열정이 회복된다(신 6:12)
- ♥ 영권, 인권, 물권 열리는 성회(대상 4:10)
- ※ 일일간증집회, 헌신예배, 금요철야기도회, 2박 3일 성회, 교회형편대로

담임목사 : 010-8537-8291 / 교회 : 053) 752-8238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리교회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담임목사 오상렬 (본직 상임이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추수감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3시, 7시 은혜와진리교회 430-82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031)443-3731	 주일에배안내 오전 7시 1부, 11시 2부, 오후 2시, 5시, 증흥교회 134-884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백운교회 360-1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136-6 ☎043)294-6214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주사랑교회 400-723 인천시 중구 운서동 2788-6 주공A 1002동 402호 ☎032)552-9066
 주일에배안내 오전 11시, 오후 2시30, 매주화요일 오전 11시 오후 4시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445-86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학리 390 ☎031)366-2236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신풍중앙교회 471-01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03-4 ☎031)562-9926	 주일에배안내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7시 창대교회 464-080 경기도 광주시 증대동 16-49 ☎070)7624-4403	 주일에배안내 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예광교회 137-817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78길(면목본동 97-39) ☎02)492-1752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일리교회 426-86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616-13 ☎031)408-3511	 주일에배안내 "남청,귀울림,오통,사지통,수족절임,중풍예방, 불임, 총명환, 침예방, 대한 한약조제합니다." 동인당건재한약방 300-150 대전시 동구 정동 31-17 ☎상담 010-2905-7526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주향교회 131-202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183-63 2층(교회) ☎02)491-1794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새생명교회 331-979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 995번지 ☎041)561-5004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마음교회 404-82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92 신인향 A상가 3층 ☎032)571-1763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하성교회 530-823 전남 목포시 변영로 162번지 ☎061)283-2728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7시 화정충현교회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91 ☎031)965-7682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7시, 11시, 2시, 7시 함께하는교회 423-060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65번지 ☎02)898-0539
 표어 내집을 채우라(눅14:23)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8시 11시 배방교회 336-855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24-6 ☎041)548-1031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중앙교회 120-8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01-1 ☎02)338-6737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주성청각장애인교회 138-847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창성성결교회 345-853 충남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92-1 ☎070)4243-9578

표어 한국 13만 경찰과 그의 가족 52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한국경목총 추수감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한국경목총 2012 추수감사절

총회장  허식목사 (과천영락교회)	증경총회장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직전총회장  엄신형 목사(증흥교회)	고문  지왕철 목사	고문  권다윗 목사	고문  박한규 목사	부회장  이정준 목사(창대교회)	부회장  김창봉 목사(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부회장  김종순 목사	부회장  이창식 목사(예광교회)	부회장  유철규 목사(신풍중앙교회)	부회장  김길수 목사(주사랑교회)	부회장  강년섭 목사(백운교회)	부회장  조규성 목사(일리교회)
부회장  남규열 목사(동인당건재한약방)	총무  홍향표 목사(새생명교회)	부총무  조연기 목사(주향교회)	서기  이상재 목사	부서기  박양우 목사(새생명교회)	회계  정운선 목사(한마음교회)	부회계  주광삼 목사(하성교회)	회의록서기  오성규 목사(새생명교회)	회의록부서기  김옥환 목사(새중앙교회)	감사  이효은 목사(화정충현교회)	감사  이상재 목사(함께하는교회)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한경총 연합교회) 지저스타임즈 JTNTV 안락방송	이사  임기석 목사(배방교회)	
이사  우솔초 목사(주성청각장애인교회)	이사  옥윤진 목사(창성성결교회)	이사  박용준 원장 (영양부가나눔 및 고려말씀에 대표)	사무국 : 서울 구로구 개봉 3동 370-40 경찰 선교에 관심이 있는 경로위원을 초대합니다.(이사, 중앙위원) 110-740 서울시 중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교회관 한국경목총회 전화 02)583-1955 팩스 02)868-0652 문의 :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010-7585-1955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 주요사이트 : 한국경목총회 www.gapck.or.kr										

인물탐방 - 신천교회 담임 이재성 목사(순장총회 부총회장)

“52년 전 포도밭이 변하여 신천교회 세워져”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총회 남부노회에 소속한 신천교회는 1960년 4월 15일 창립되어 2012년 지난 10월 15일 52돌을 맞이했다.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주택 상가 밀집지역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신천교회는 참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있는 교회로서 지역에서 좋은 소문으로 평가가 높다. 또한 담임 이재성 목사(49)를 비롯 장로, 권사, 집사, 부 교역자들 간의 덕망이 높아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생활하며 교회를 섬긴다.

경기도 강화가 고향인 이재성牧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올라와 고향분(집사)의 전도로 처음 출석한 교회가 신천교회였고 교회에서 성장했다. 그 후 어머니로 서울로 올라와 본교회의 집사로 섬기던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52년 전 포도밭이 변하여 신천교회가 되었다. 저희 교회는 1960년 10월 15일 한운봉 집사님 댁에서 주일학교로 시작해서 신천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곳은 이현무 장로님의 포도밭이었는데 100평을 헌납받아서 덕천교회의 보조와 신도

들의 건축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후 연건평 530평 위에 평면건평 140평, 지상 3층, (옥탑4층), 지하 1층으로 건축되어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신천교회는 1대 유영교 목사님, 2대 전재영 목사님, 3대 노활수 목사님(6개월간 임시목사), 4대 안창근 목사님, 그리고 2008년 12월 5일 안창근 목사님을 월로목사님으로 추대하고, 제가 담임목사로 위임을 했습니다.

현재 신천교회는 부목사님 3명, 남 전도사 1명, 여 전도사 4명, 행정직원 1명 등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교인은 장년부, 주일학교 청년부 등 850~900여명 됩니다.

▶교회성장에 있어 목회의 비결이 있다면?

저는 매년 11월이면 년 중 교회행사를 갖고 정책당회를 열어 예산을 편성을 한 후 교역자들이 MT를 떠나고 그곳에서 제가 1년 목표로 목회계획을 발표하고 각 부서별로 조율한 다음 돌아옵니다. 그리고 2012년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성회는 그들에게 영적프로그램이 됩니다. 그것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살기를 원했던 마음입니다. 이처럼 신천교회도 1년 동안 그 말씀에 풍성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고민하면서 저의 교회는 년 말 년 초는 항상 다듬고 여름이란 새벽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클로즈오픈이란 뜻으로 한해를 기도로 받고, 연다는 뜻으로 2주 동안 특별새벽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러한 목표로 비전전포식에서 모든 교인들이 선언기도 하고, 1월이 되면 각 부서를, 단제장 모임을 가지면서 1년 동안 조율하고, 2월 달에는 부흥회로 마음을 가다듬고, 3월부터는 4순절기간에서 부활절까지의 영적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제공하고, 그 후에는 여름행사, 또한 추수감사절까지 이 ‘예담20프로그램’으로 현재 4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별로 신발박스만큼의 박스를 만들어 선물을 넣어서 한 가정에 하나씩 전달하는데 그곳에 편지를 써넣어 보내주면 이것을 성탄절 때 기관마다 찾아다니면서 배부하고, 낮아집과 나눔의 행사를 하면서 한해가 마감되는데 또 다시 년 중 행사로 이어지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교회성장을 위한 목회비전과 방향은?

신천교회의 2012년 표어가“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4가지를 찾아냈습니다.

1) ‘예수님의 모범을 좇아 하나님 앞에 영광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2) ‘예수님의 모범을 좇아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는 공동체’이며,

3)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

4) ‘예수님의 명령을 좇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양육, 이웃 섬김, 선교 등에 포커를 맞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신천교회가 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신학교를 책임졌으면 하는 것과, 어렵게 힘들게 목회하는 동료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목회방침입니다.

아울러 교단과 교회가 신학교와 함께 그 사역을 만들어 가는 동요 목회자들을 그 자녀들까지 섬길 수 있고, 다음으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들을 펼쳐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회의 비전가운데 한 방향입니다.

반면에 저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고, 신천바오로아카데미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수요일은 지역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매주 진행되는데 80~90여 명의 노인들이 오십니다. 교회는 노인들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여 점심을 대접하고, 년 중 두 번씩은 야외로 모시는 등 신천교회는 지역과의 관계, 지역을 섬긴다는 개념으로 동사무소와의 관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교회성장에 있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년들, 초등부, 영아부, 유치부 등이 있지만,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 민감한 사춘기를 맞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특별한 교육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교역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승부가 안 나면 신앙의 승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시급한 것은 청소년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전문사역자들이 신학교에서 많이 배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청소년부 한 사람 한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와 신경을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목요일마다 열리는 ‘유스 컴퍼런스’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과 마인드를 심어 주느라 따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현신할 수 있었구나하는 그런 꿈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부란 말 보다는 우리는 ‘유스’라는 말을 붙였고, 다음으로 ‘유스페스티벌’란 말을 붙여서 젊은 시절 꿈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에서 진행하고 있다. 저도 많은 비중을 ‘유스’쪽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목회자로서 한국교회에 바램이 있다면?

지금 저를 비롯해서 목회를 할수록 제가 형편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설교하는 자체가 부담인 것 같습니다. 때론 교인들을 너무 몰아붙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묘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샤머니즘 등이 혼합되었고, 성경운동도 이상한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한국교회를 본인들이 열광이라고 책임졌던 사람들이 세습으로, 또는 종회 때만 되면 싸움질과 가스충을 들고 설치는 등 낮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목사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주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개혁주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교회도 내 욕심, 내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에 자리로 돌려드려야지만, 한국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

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제 바램이요, 또는 제 자신에게 드는 책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가 목사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단에서 외칠 수 있는 거고, 다음세대 비전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가 결국 젊은 애들을 교회 밖으로 내 몰아놓고, 교회는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논한다는 것은 낮 뜨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초월적 주님의 개념만 갖고 있지, 선생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선생을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라는 개념을 회복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몸부림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목회에 있어서 저의 좌우명은?

요한복음 13: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또한 평소 많이 불렀던 찬송 중 한국을 택한다면 찬송가 88장입니다. 후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이 땅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담임 이재성 목사의 연역을 보면 총신대학 신학과(B.A. 문학사) 총회신학원(M.Div 목회학 석사), 평택대학교 대학원(Th.M. 신학석사), 평택대학교 대학원(Ph.D. 신학박사), Trinity Western University(Post Dos. 박사 후 과정 수료) 2008년 신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 현재 담임목사,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신약학)를 역임하고 있다.



추수감사절을 축하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YANGGIROUN CHURCH

표어 이 전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학2:7)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섬기는 분들

전임전도사 : 이귀선(사문) 전도사 : 험시바
선교사 : 전승주, 손호자(태국지양마이)
장로 : 최문호, 유봉철
안수집사 : 손경현, 배하성, 정대봉
성가대장 : 정대봉
성가지휘 : 이용경
피아노 : 배민지 신디 : 김인영
드럼 : 유혜란 김효정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09:30
2부 찬양예배	오후 1:30	청년1,2팀예배	오전 09:30
사랑 애찬	교제시간	주일학교예배	오전 09:30
수요기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목
영락원예배	오전 9:00	1일월삭 예배	오전 05:00
목요치유예배	오후 7:30	1기 제자교육	월화금요일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 향기로운빌딩 9층

☎ 032)814-7720, 팩스 032)714-3131 010)4274-3330

축 제5대 대표회장 취임

대표회장



박영민 목사

- 예장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예장(백성) 인천노회 소속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 지사장 및 본사 사무국장

총재



이재갑 목사

▼인사의글

부족한 종이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세주부협) 제5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였기에 지면으로 취임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그리고 한국교회와 기도원에 감사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와 기도원을 살리는 일에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하나님의 직분 주심인 줄 알고 좋은 곳만 가려서 다니는 부흥사가 아닌 철저한 야전부흥사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며, 7주년이 지난 세주부협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 하겠습니다.

박영민 목사 배상

▼조 직

고문 : 광동식 목사, 강문중 목사 지문 : 박길영 목사, 정기환 목사

총재 : 이재갑 목사 부총재 : 이재원 목사, 정기남 목사, 성창경 목사, 하종우 목사

연수원장 : 정기환 목사 대표회장 : 광영민 목사 사무총장(수석상임회장) : 데이비드 김 목사

상임의장 : 박수영 목사, 진경택 목사 감사단장 : 박수영 목사 수석실무회장 : 전진성 목사

예능국장 : 선명숙 목사 사무처장 : 주은총 목사 실무회장 : 김부경 목사, 김명옥 목사, 정선 목사, 주은총 목사, 선명숙 목사, 이기학 목사, 박달수 선교사 사무처장(수석공동회장): 오세승 목사 회계 : 오세승 목사 공동회장 : 김봉남 목사, 김창영 선교사, 박세철 목사, 윤순란 목사, 이성숙 목사, 전미리 목사, 정성준 목사, 주감사 목사, 주찬양 목사, 주영광선교사, 이명근 목사, 임요한 목사, 여현관 목사, 이재숙목사, 박광훈 목사 수석총무 : 안정일

전도사 총무 : 오선전 전도사, 김귀열 전도사.

회원 가입 및 성회 문의

대표회장(010-2080-0651)
사무총장(010-2802-3928)

공주공덕교회 목사위임 및 임직감사에배 드려

서명범 목사의 목사위임식과 집사 장립 및 권사취임 거행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총회 남부노회는 11월 13일(화) 오전 11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소재 공덕교회 본당에서 서명범 목사의 목사위임식과 집사 장립 및 권사취임식이 거행됐다.

이날 서명범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동부노회장 지태성 목사가 기도를, 총회장 지태영 목사는 왕상 3:4~15절을 주제로 "신앙의 바른 자세와 모습을 아는 성도"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남부노회장 이재성 목사의 주례로 2부 위임식이 거행되어 목사서약과 교인들의 서약이 있는 후 서명범 목사를 공덕교회의 위임목사로 공포하고, 중부노회장 강철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3부 임직에서 당회장 서명범 목사의 주례로 안수집사 1명과 권사 3명이 취임

했다. 이어 공덕교회 조길수 장로가 권면을, 임직자 대표 강정구 장립집사의 답사가 이어졌다.

이울리 교회가 임직자들에게, 임직자들은 교회에 선물을 증정하고, 송두현 장로의 광고가 있는 후 총회장 지태영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안수위원은 지태영 목사(총회장), 이재성 목사(남부노회장), 지태성 목사(동부노회장), 강철 목사(중부노회장), 당회장 서명범 목사(공덕교회), 조길수 장로(공덕교회) 등이다. 총회장 지태영 목사 위임설교는 www.jtntv.kr 인터넷방송에서...



중앙노회 제25회 노회장 정일량 목사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중앙노회 제25회 정기노회가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소재 향기로운교회(정일량 목사)에서 지난 10월 30일(화) 오전 11시 개회되어 정일량 목사가 새로운 중앙노회 노회장에 선출됐다.

서기 최재필 목사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부노회장 손백두 목사가 기도, 부회계 정광철 목사가 성경 고후 5:17절을 봉독하고 노회장 정기환 목사는 "새롭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송베드로 목사의 헌금기도와 서기 최재필 목사의 광고가 있는 후 중경노회장 임철환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2부 성찬예식이 거행되고, 3부 제25회 정기노회가 진행되었으며, 임원 선거에서 노회장 정일량 목사(향기로운교회), 부노회장 손백두 목사(사랑의빛교회), 방윤희 목사(성령진리교회), 서기 손백두

목사(결임), 부서기 강석홍 목사(예담교회), 회의록서기 송베드로 목사(성령진리교회), 회의록부서기 이기수 목사(사랑선교회), 회계 최재필 목사(행복을주는교회), 부회계 정광철 목사(생명의빛교회), 감사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 손찬현 목사(비전교회) 등이 선출됐다.

한편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전승주 목사의 선교보고를 듣고 선교를 위한 기도회와 특별헌금을 모아 전달하고 노회장 정일량 목사(향기로운교회)에는 전승주 목사에게 태국에서 필요한 컴퓨터, 노트북 등을 전달했다.

또한 총회에서 부총회장 허성인 목사, 총무 신언장 목사, 유윤주 목사 등이 참석, 중앙노회 제25회 정기노회를 축하하고, 중앙노회의 발전과 총회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써줄 것을 부탁하는 등 훈훈하고 화기애애한 덕담을 나누었다.



남부노회, 새빛중앙교회에서 목사임직식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총회 남부노회(노회장 이재성 목사)는 11월 13일(화) 오후 7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소재 새빛중앙교회(담임 지태일 목사)에서 김대중 강도사의 목사임직예배가 드려졌다.

지태일 목사(남부노회 시찰부장) 인

도로 임직예배가 진행되었고, 총무 손종필 목사의 기도가 있는 후 총회장 지태영 목사는 열왕기상 3:4~15절을 중심으로 "사명을 알고 수행하는 일꾼"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남부노회장 이재성 목사 주례로 임직식을 거행하고, 임직자의 소개가 있

은 후 노회장은 임직자에게 서약과 문답에 이어 노회장 이재성 목사는 안수위원들과 같이 김대중 강도사를 안수하고 목사된 것을 공포했으며, 지태성 목사(동부노회장)가 권면과 축사를, 김대중 신임목사의 답사가 있는 후 새빛중앙교회 여성중앙단의 특별찬양이 있는 후 남부

노회 서기 이준순 목사가 광고하고, 중부노회장 강철 목사 축도로 임직예배를 마쳤다.

이날 안수위원은 지태영 목사(총회장), 이재성 목사(남부노회장), 지태일 목사(남부노회 시찰부장), 지태성 목사(동부노회장), 강철 목사(중부노회장), 손종필 목사(남부노회 총무), 이준순 목사(남부노회 서기) 등이다.

한편 총회장 이태영 목사의 설교는 www.jtntv.kr 인터넷방송에서...

파종전 목사 12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 3(월)~5(수) 서울 새생명교회(정수천 목사) ☎ 010-5522-3996
- 10(월)~12(수) 부산 JSTV 위성방송센터(이사장 파종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051)632-4111
- 13(목)~15(토) 전주기도원(원장 김진홍 목사) ☎(055)748-7209
- 15(토) 오후 (사)순성세계복음선교회 선교센터 ☎(02)408-2727
- 17(월)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파종전 목사, 대표회장 이종인 목사) 장소: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 ☎(02)3411-9191
- 17(월)~20(목) 화성 명성교회(박명순 목사) ☎(031)968-9191
- 21(금) 오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실천목회연구원(원장 파종전 목사) ☎(02)2067-4511
- 21(금) 오전 서울 큰사랑교회(최영식 목사) ☎(02)403-4821
- 21(금)~22(토) 부산 JSTV 위성방송센터(이사장 파종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02)3411-9191
- 24(월)~25(토)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 성전절 행사 ☎(02)3411-9191
- 26(수)~29(토)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3
- 28(금) 오후 글로벌찬양물동신학원(원장 이애라 목사, 운영위원장 파종전 목사) 장소: 서울롯데호텔(소공동) 대강당 ☎ 010-4870-7572
- 31(월) 저녁 남서울중앙교회(원목사 파종전, 담임 여찬근 목사) 송구영신축복안수대성회 ☎(02)3411-9191

추수감사 및 중앙노회 25회기 신임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2:10절)
노회장 정일량 목사 외 임원일동은 노회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일량 목사
(향기로운교회)



손백두 목사
(사랑의빛교회)



방윤희 목사
(성령진리교회)



손백두 목사
(사랑의빛교회)



강석홍 목사
(예담교회)



송베드로 목사
(성령진리교회)



이기수 목사
(사랑선교회)



최재필 목사
(행복을주는교회)



정광철 목사
(생명의빛교회)



손찬현 목사
(비전교회)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추수감사 및 담임목사위임 장립집사, 권사취임을 축하합니다.



담임 서명범 목사

담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사 : 김정예,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
덕
교
회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e-mail:lov153@naver.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
앙
노
회

중앙노회 / 425-82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049-9
☎031)486-3519 노회장 010)4274-3330, 서기 010)3324-9958